



Seoul National University U.S. Alumni News

www.snuuaa.org

서울대미주동창회보

2410 2014년 5월
서울대 미주 동창회
1952 Gallows Rd., #206
Vienna, VA 22182, USA
Tel. 703-462-9093 Fax. 703-462-9093
e-mail: snuuaa12@gmail.com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미리크 온다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4월 8일 미국 워싱턴 DC 민주당 당사 내 빈 사무실에서 신창민 명예교수(오른쪽에서 세번째)와 단찬을 한 직후 '통일만 대박이다'라는 신 교수 저서 '일본만을 중점받고 한겨레 못 갔고' 80도 위원은 백악관에서 보내고 싶다면서 신 교수의 저서를 내건이나 더 받아 갔다. 이날 유재철(발대 60) MO 로물라리대 교수신 교수 권혁도 자리를 같이 했다. 신 교수는 4월 4일 비지니어의 푸레픽에서 동포들을 대상으로 강연했다. <관계자 사진 6-7, 15>

미주 동창회 제23차 전국 평의원 회의

Keynote Speaker Victor Cha 교수

전야제는 지역 동창회 장기자랑으로

제23차 평의원회의(6월 28일, 토)에서 Keynote Speaker로 Victor Cha 교수(사진)를 초빙했다. Victor Cha 교수는 한국인 2세로 뉴욕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Georgetown대학 정치학과 교수로 Director of Asian Studies와 D.S. Song-Myeong Endowed Chair in International Affairs를 겸임하고 있다. 또한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Washington, D.C.)에서 Senior Adviser



and Korea Chair로 재직하고 있으며 Contemporary Asia in the World Series, Columbia University Press에서 Co-Editor 일을 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2007년까지는

National Security Council, White House에서 일하면서 2006-2007년에는 Director for Asian Affairs and United States의 Deputy Head of Delegation to Six Party Talks(북핵 6차 회담) 미국 측 자석대표를 맡은 바 있다. 제23차 전국 평의원 회의의 전야제에서는 6월 27일(금) Brain-Network Symposium이 끝나고 Best in Towns Hotel Ball Room에서 저녁연말 개미 동창회들의 정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빌바루터 정기대회가 재미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여기저기서 평의원 회의가 Symposium과 더불어 정기대회 일하는 event를 원하며 모든

부담에 '승리 작품상 승부'라고 명시할 것.
▶주의 = 승부 작품은 지금까지 더 언론이나 잡지, 인터넷 매체 등에 발표 또는 게재되지 않은 작품을 원하며, 원고는 원하지 않음, 성명(영이와 영), 출신 대학 및 입학연도, 전화번호, 가능하면 e-mail주소를 명시할 것.
▶마감일 = 2014년 8월 15일.
▶보낼 곳 = 미주 동창회 사무실(1852 Gallows Rd., #206, Vienna, VA, 22182)
▶문의 = 미주 동창회 사무실 전화 703-462-9083, e-mail: snuuaa12@gmail.com
▶결과 발표 = 가능한 경우 본 동창회보 10월에 심사 결과를 발표함.

서울대 미주 동창회

<기획특집>
세월호 참사 10-1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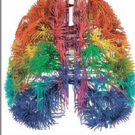
NON-PROFIT
US POSTAGE PAID
DULLES, VA
PERMIT NO. 645

태아 뇌유전자 지도, 쥐 뇌신경회로도 완성 "뇌의 비밀 첫 단서 풀어"

“유전자와 뇌의 포괄적 1년” 세계적 연구자 팀 'Nature'에 논문 두 편 발표

“인류는 몇 광년이나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은하는 찾아내지 않더라도 귀 사이에 있는 3억호드라리 할라의 미스터리해 아직 풀지 못 하고 있다.”
지난 해 4월 2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취임 1년, 우

태아 유전자 지도와 쥐 뇌신경회로도를 작성하는 'Brain Initiative'를 발표하는 자리에서다. 정확히 1년 뒤, 그 미스터리해 첫 단서 풀었다. 미국 앨런 뇌 과학 연구소는 오승욱(모교 화학과 출) 박사 팀이 지난 4월 2일 생쥐의 3차원 뇌 신경 회로도(인간 태아의 뇌 유전자 표현 지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과학저널 'Nature'에 발표된 두 편은



*다양한 색깔 영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생쥐 뇌의 3차원 뇌 지도(왼쪽 뇌과학 연구소 제공)

"북미주에서 SNU가 준비하기 위한 SNUAA Initiatives"

- 각종 동창회 행사에 적극 참여하자
- 모두들 회비를 납부하자
-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자
- 모교 발전에 기여하자
- SNU Network를 구축하자
- 한인사회와 미 주류사회에 기여하자
- 북미주 명문대학 동창회들과 교류하자
- SNUAA Group 으로서의 힘을 발휘하자

[L에서 거주하고 있는 정동구(공대 57·사건) 둘은 모교 도서관 신축 리모델링 캠페인에 5천 달러를 기증하고 후자가 5천 달러를 더 기증한 바 있다. 이에 모교 박지현 도서관장은 정동구 둘에게 감사의 시신과 선물을 보냈는데 이에 정 둘은 이에 답신을 보내왔다. 또한 정 둘은 미주 동향에 오만한 회계에게 이와 관련한 미팅을 보내와 이를 게재한다.

“모교 발전기금 모금에 기폭제가 될 수 있기를...”

복지향 관심남캐

공대 기계공학부를 1977년에 입학해서 1981년에 졸업하고 지금은 LA 근교에서 살고 있는 정동구입니다.

이전에 보내주신 시신과 귀한 선물을 감사합니다. 동종의 한 사그란 김치와 콩국수 project인 관저도서관 신축 모금 campaign에 작은 정성을 보낼 수 있기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관저 미용관 제안과 또 다른 많은 동문들의 기부에 비하면 제가 보인 정성은 조속지체해 볼까한데 같은 해후를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교 서울대야말로 한국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 갈, 또 세계로 도약할 많은 인재들을 배출할 한국 지성의 본거임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간 김치와 콩국수 캠페인 배려와 또 볼 뿌려 모금 campaign web page를 통해 신축 도서관의 진화사항과 모금 현황에 대해서도 잘 알았 되었습니다.

web page에 게재된 도서관 건물과 조두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나, campus를 잘 알고는 있는 편입니다.

지난 건축 사업에 의하여 일찌하고 remodeling하여 잘 정교도 노후가 그렇게 빨리 나타나지 않 부실상상이 아니었는지 알려드립니다. 관저 동종의 주한 donation 을 바탕으로 해서 도서관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모두가 기뻐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건축이 관저 동종과 같은 부실상, 건축실적과 시공 모든 분야에서 공개에 시무 할 모든 모두가 정성을 쏟아 주는데는 물론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이름답고 알찬 모습 도서관으로 한국 역사에 남을 대학 도서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campus 안에 있는 다른 건물은 이번 건축 도서관이야말로 학생들과 인접도로만 특별히 있는 데 한국에 새겨진 모금 캠페인도 있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종구 이름을 신축 도서관 공간에 적게라도 게시하는 방안은 기종구와 모교의 관계를 잘 표현하게 해 주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학업연인 모교를 위한 관심이 이제 활동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입니다.

또 도서관을 활용하는 후배들에게도 이 선배의 이름 생까지 눈에 들어 올 선배의 관심과 정성을 알게 하려면 그들도 조만간 할 일을 떠나고 나니도 이러한 생의 시 images 모교와 선배들의 따뜻한 관계를 키워 나가는데 도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관저하고 아름다운 새 도서관 건물이 마무리 될 이후에도 정동구 같은 많은 모교의 fund raising campaign에 작은 정성을 보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관저하고 아름다운 새 도서관 건물이 마무리 될 이후에도 정동구 같은 많은 모교의 fund raising campaign에 작은 정성을 보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관저하고 아름다운 새 도서관 건물이 마무리 될 이후에도 정동구 같은 많은 모교의 fund raising campaign에 작은 정성을 보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관저하고 아름다운 새 도서관 건물이 마무리 될 이후에도 정동구 같은 많은 모교의 fund raising campaign에 작은 정성을 보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모교 도서관 신축 리모델링 기금모금 캠페인

“서울대 도서관의 친구들”

모교 도서관이 40년 이상된 노후 건물이다 제각각 세를 사용 수조 수조 장의 도서관으로 인해 현재 상태에 부차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서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내이닝(Noming) 캠페인과 리모델링 모금 캠페인을 다음과 같이 벌이고 있다.

▶Noming 모금 캠페인 = 선배들이 기부해주는 금액으로 제각각 후배들이 사용할 책상, 의자, 시가에 기부해온 선배들의 이름을 새겨 넣어 앞으로 후배들이 영영히 기억하도록 해준다. <도표 참조>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모금 캠페인 = 도서관은 학생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그러나 현재의 중앙 도서관은 오래된 도서관과 함께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날은 시설의 리모델링이 절박적으로 필요하다. 지난 해 5월 이들을 사정없이 전례없는 조건의 동문은 “중앙도

서관 시설행정 개선기금”으로 500만원의 기금을 모으고 ▶모교 캠페인 3년간 총 1억여 명의 동문들이 99억원이 넘게 기부했다. 중앙도서관 시설행정을 위한 모교 액수는 3년간 총 1억원으로

종류	내역	모금액	선착
열람실	열람실 의자	100만원(\$1,000)	<input type="checkbox"/>
	4인 테이블	300만원(\$3,000)	<input type="checkbox"/>
	8인 테이블	500만원(\$5,000)	<input type="checkbox"/>
서가		500만원(\$5,000)	<input type="checkbox"/>
열린미디어실	열린미디어세트	500만원(5,000)	<input type="checkbox"/>
	개틀린	1천만원(\$10,000)	<input type="checkbox"/>
그룹스터디룸	4-6인실	3천만원(\$30,000)	<input type="checkbox"/>
	8-10인실	5천만원(\$50,000)	<input type="checkbox"/>
세미나실	30석 규모	2억원(\$200,000)	<input type="checkbox"/>
	60석 규모	3억원(\$300,000)	<input type="checkbox"/>
컨퍼런스룸	100석 규모	10억원(\$1,000,000)	<input type="checkbox"/>
	300석 규모	30억원(\$3,000,000)	<input type="checkbox"/>

오인화 회장님께

중책을 맡으신 미주 동향의 일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미주 동향회를 통해 모교 신축 모금 fund raising campaign에 작은 정성을 보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관저하고 아름다운 새 도서관 건물이 마무리 될 이후에도 정동구 같은 많은 모교의 fund raising campaign에 작은 정성을 보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관저하고 아름다운 새 도서관 건물이 마무리 될 이후에도 정동구 같은 많은 모교의 fund raising campaign에 작은 정성을 보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관저하고 아름다운 새 도서관 건물이 마무리 될 이후에도 정동구 같은 많은 모교의 fund raising campaign에 작은 정성을 보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관저하고 아름다운 새 도서관 건물이 마무리 될 이후에도 정동구 같은 많은 모교의 fund raising campaign에 작은 정성을 보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관저하고 아름다운 새 도서관 건물이 마무리 될 이후에도 정동구 같은 많은 모교의 fund raising campaign에 작은 정성을 보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크게 donation 할 문은 어떤 campaign이 적절 한지 찾아내는 조속까지도 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미국내에서 donation에 대한 열의를 받을 수 있도록도 전미 범용 열람실 유선전화 등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donation에 대한 열의를 받을 수 있도록도 전미 범용 열람실 유선전화 등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donation에 대한 열의를 받을 수 있도록도 전미 범용 열람실 유선전화 등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donation에 대한 열의를 받을 수 있도록도 전미 범용 열람실 유선전화 등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donation에 대한 열의를 받을 수 있도록도 전미 범용 열람실 유선전화 등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 모금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주시고 후배들이 선배들의 정성을 새겨가 더욱 모교의 미래를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캠페인 기간: 2014년 5월 20일부터 2016년 5월 19일까지 >>> 모교 캠페인 3년간 총 1억여 원이 모교 운동금을 얻었다. 이 캠페인의 자세한 내용은 http://friends.snu.ac.kr 통해 시도 확인할 수 있다. >>>

이 모금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주시고 후배들이 선배들의 정성을 새겨가 더욱 모교의 미래를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캠페인 기간: 2014년 5월 20일부터 2016년 5월 19일까지 >>> 모교 캠페인 3년간 총 1억여 원이 모교 운동금을 얻었다. 이 캠페인의 자세한 내용은 http://friends.snu.ac.kr 통해 시도 확인할 수 있다. >>>

종류	내역	모금액	선착
열람실	열람실 의자	100만원(\$1,000)	<input type="checkbox"/>
	4인 테이블	300만원(\$3,000)	<input type="checkbox"/>
	8인 테이블	500만원(\$5,000)	<input type="checkbox"/>
서가		500만원(\$5,000)	<input type="checkbox"/>
열린미디어실	열린미디어세트	500만원(5,000)	<input type="checkbox"/>
	개틀린	1천만원(\$10,000)	<input type="checkbox"/>
그룹스터디룸	4-6인실	3천만원(\$30,000)	<input type="checkbox"/>
	8-10인실	5천만원(\$50,000)	<input type="checkbox"/>
세미나실	30석 규모	2억원(\$200,000)	<input type="checkbox"/>
	60석 규모	3억원(\$300,000)	<input type="checkbox"/>
컨퍼런스룸	100석 규모	10억원(\$1,000,000)	<input type="checkbox"/>
	300석 규모	30억원(\$3,000,000)	<input type="checkbox"/>

사에서 가능한 한 일고, 서로 도와주는 spirit을 가진 donation culture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도 됐다고 봅니다.

모교 도서관 신축 모금을 위한 화창원의 배려와 수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바라는 바 또한 감사의 정

말씀드립니다. >>> 캠페인 기간: 2014년 5월 20일부터 2016년 5월 19일까지 >>> 모교 캠페인 3년간 총 1억여 원이 모교 운동금을 얻었다. 이 캠페인의 자세한 내용은 http://friends.snu.ac.kr 통해 시도 확인할 수 있다. >>>

말씀드립니다. >>> 캠페인 기간: 2014년 5월 20일부터 2016년 5월 19일까지 >>> 모교 캠페인 3년간 총 1억여 원이 모교 운동금을 얻었다. 이 캠페인의 자세한 내용은 http://friends.snu.ac.kr 통해 시도 확인할 수 있다. >>>

말씀드립니다. >>> 캠페인 기간: 2014년 5월 20일부터 2016년 5월 19일까지 >>> 모교 캠페인 3년간 총 1억여 원이 모교 운동금을 얻었다. 이 캠페인의 자세한 내용은 http://friends.snu.ac.kr 통해 시도 확인할 수 있다. >>>

말씀드립니다. >>> 캠페인 기간: 2014년 5월 20일부터 2016년 5월 19일까지 >>> 모교 캠페인 3년간 총 1억여 원이 모교 운동금을 얻었다. 이 캠페인의 자세한 내용은 http://friends.snu.ac.kr 통해 시도 확인할 수 있다. >>>

차 례	표 모교 학생 국제공부 컨설턴트 선정	14-15 이점원 동향의 희망가치 대 방문기	25. <여행기나그리 봄 봄의 왕국들><
3.사자개발팀이 서울대의역사적 사명 / 캠페인 개발 회의 및실/ 경시해설	67-68&24등은 대학 사인간/ 재외동	16-19 미주 지부 공식서시	26-27. 동향회차, 권위후배들 <
4. <내로소>뉴스후보 후보 경 영/ 세기 이학박사등 1명 위원 후배/ 양보과	89. <이학 1등 가정을 단애같은 어머니의 편지> 어느 리노 개편의 사모/ 가	20-22 <내로소>대형특별한 인/ 인출년 중앙 / 세 원외연계제 M/W/ 달출년 중앙	28. 문문 업소/ 신간조는
5. <내로소>뉴스후보 후보 경 영/ 세기 이학박사등 1명 위원 후배/ 양보과	20-22 <내로소>대형특별한 인/ 인출년 중앙 / 세 원외연계제 M/W/ 달출년 중앙	23. <내로소>대형특별한 인/ 인출년 중앙 / 세 원외연계제 M/W/ 달출년 중앙	30. 지부 동향회차/ 편지구 <
6. <내로소>뉴스후보 후보 경 영/ 세기 이학박사등 1명 위원 후배/ 양보과	20-22 <내로소>대형특별한 인/ 인출년 중앙 / 세 원외연계제 M/W/ 달출년 중앙	24. <내로소>대형특별한 인/ 인출년 중앙 / 세 원외연계제 M/W/ 달출년 중앙	31-32. 링크
7. <내로소>뉴스후보 후보 경 영/ 세기 이학박사등 1명 위원 후배/ 양보과	20-22 <내로소>대형특별한 인/ 인출년 중앙 / 세 원외연계제 M/W/ 달출년 중앙	25. <내로소>대형특별한 인/ 인출년 중앙 / 세 원외연계제 M/W/ 달출년 중앙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위원회가 거친 것으로, 아울러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글은 본 회보가 Copy Right 갖습니다.

시국 칼럼

재미 서울대인의 역사적 사명

미 정계를 향한 e-mail청원단 창설을 제안한다



이나혜(사진 56) VA 워싱턴한국학교협회 전 이사장

미국은 여전히 최강의 세계 경제 강국이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정세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대한중국의 패망과 일제 강점, 2차 세계대전과 해방, 6.25 남침과 민주주의, 전후 복구와 경제 발전, 유학 이민과 새로운 한민족의 형성, 신흥 대한민국의 근대화는 미국과 불가분의 질적 관련이 있는 과정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한-미 합숙 속에서 미국의 당당한 유권자인으로 자라 정채 리더십을 닦아보는 우리 재미 워싱턴의 역할은 그중 목격적일 수밖에 없다. 그 중 한국을 대표해 온 민족의 산신인 서울대인의 사명도 필연적으로 서태워야 하는 것이기에 양국인 역사적 소임을 감행할 절의를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앞에는 뜻이 있는 잘나한 미국과, 뜻이 있는 북-중 관계 전문가와 한-중 필름그룹, 시대의 절망, 일의 극우화, 이따부장, 일보야욕으로 빠지는 새로운(일진)세대의 정조, 예측 불허의 북한과 스피드 가는 북핵 동풍들의 함락, 바로 그 속에 재미 한인들의 막대한 고요한 소임과 역할이 내재해 있고 그 최전방에 미주 서울대인들이 있다는 것은 말할이 거두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실패 못할 수도, 피해야도 안 될 엄청난 과제, 또한 책임이다. 그러니 미주 서울대인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첫째, 조속히 미 주류 정계체를 광범한 e-mail 청원단을 조직하고 탁발하면서도 지칠만 정치체-국제적력-역사적 논리와 opinion을 산출할 leader group을 구성하여 전 미국의 한인 동포청원단을 리더쉽으로 한다. 둘째, 한반도 통일 논의를 위한 일의 순일화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일이다. 어떻게?

국동 안보에 있어서 미국은 절박하므로 일본총서 정세를 움직여야 하고 한반도 통일에 관한 미국은 일본과 협의하게 되어 있고 일본은 배후에서 기어오를 움직임을 방화하고자 할 것이다.

우리는 신적적으로, 1. 카사라 - 레드프 밀야로 대미제국의 패망과 일제 강점을 방화하여 한민족에게 30년간 열정난 수탈과 핍박을 안긴 역사적 과오와,

2. 캠프데이비스 전후 패배조약에서 당시 미국인 한국을 제외할려고 하자 피하러가도 유대인 독도 행거 반란을 비밀리에 누락 시켜 오늘날의 독도를 영유권 논란을 야기시킨 외교 과실이 마땅히 고쳐져야,

3. 현재 진행중인 일본의 역사 왜곡과 위안부 인권 부정 등 비인권적인 즉독후를 유대인의 반발과 일본 개국을 단호히 반대한다.

군국주의의 마당에 빠져 갔다로의 반성이 없는 일본과는 앞으로 도미익 분야에서 접촉 없는 태도와 불협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리고 그 불협이 있는 우리 한국이어나고 있는 일본과 미국 한인 동포들이 손익을 들어 있다. 위안부 인권 결의의 미 의회 및 UN, 세계, 기밀비 회포 및 전국 학생, 그리고 해외의 버지니아 동해 행정 동풍의 정장은 그 가정의 중대한 실용 사례이다. 이들을 모두 일본에서 그 막대한 외교력과 총력을 기울일 때 도미익을 더주 현지 한인들과의 사명도 더불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 친절한 가치와 밝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e-mail 청원단의 실현성을 보자. 우선 미주 서울대 동포들 내에 대부분을 설립하고 동포지원 부부 자녀 가족의 e-mail 동포들만 하여 5-6인의 e-mail청원단 팀이 형성될 것이고 동포청원단이 여러의 한국대학 동포들하여 연대 확산시키면 그 2인의 팀이 가능 할 것이다.

그리고 전국 정정보도 및 청원이라는 물론 리더십이 전 미국 동포 청원단을 결성 고려하고 총괄한다 30대 멤버는 그 어떤 것을 할 것이다.

이 e-mail 청원단은 지휘부의 권고에 따라 청원서 편찬하여 순신제 활용될 수가 있어 지극정중론인 미국 동포들의 도모를 도와야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다. 잘 기다리는가? 지금이 바로 실행의 나날이다.***

미주 서울대 총동창회 제23차 전국 평의원 회의 일정

The Westin Hotel, Tysons Corner, VA 22043 (Red Color는 비평의원, 가족, 워싱턴 동문도 참가)

Time	Thursday June 26	Friday June 27	Saturday June 28	Sunday June 29
07:30-08:00		Breakfast	Breakfast, Registration	Breakfast
08:30-09:00	Arrival and Registration			
09:00-10:00	Brain Network Symposium AM Session (Korean Studies)		평의원 회의	Departure & Free Time
10:00-11:00				
11:00-12:00				Move by Bus to GC
12:00-01:00	Lunch	Lunch	Lunch and Photo Session	Lunch and Photo
01:30-02:00				
02:00-03:00	Arrival and Registration	Brain Network Symposium PM Session (Life Science)	평의원 회의 (Acropolis@대 Conference)	Golf Game(PB Dye GC)
03:00-04:00				워싱턴 동문도 환영 (1인당 \$100)
04:00-05:00			Free Time	10:30 접수
05:00-06:00			Registration & Social Mix	
06:00-07:00		평의원 회의 전야제 (워싱턴 동문도 환영, 1인당 \$90)	Main Banquet (회교총장 축사, 서용명장, Keynote Speaker)	
07:00-08:00		1인당 \$90	The Westin Hotel 7801 Leesburg Pike, Falls Church, VA 22043	Dinner and Winners Presentation
08:00-09:00	Dinner		7801 Leesburg Pike, Falls Church, VA 22043	
09:00-10:00		Chapter Presidents Meeting		Move to Hotel by Bus
10:00-11:00				

문의: 한정민 총무국장(703-618-4180, snuausa12@gmail.com) 정희희 사무행정(301-861-9227) 개최호텔 예약(5월 30일까지) = The Westin Tysons Corner Hotel (7801 Leesburg Pike, Falls Church, VA 22043, Tel. 888-827-8870 or 703-853-1340, www.westin.com/cornerhotel.com)

계시관

▶워싱턴주 동창회(회장 이원진 총대 77) - 시인이 워싱턴(회장 장재훈 총대 72)이 4월의 세미나로 지난 4월 12일 Bellevue Newport Way Library 에서 최경숙 교수(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청, "세계경제 현황과 전망" 에 대해 강연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5월 세미나는 10-11일 1박 2일 예정의 Spring Field Trip을 실시했다. 독일 마을 Bavarian Village로 Leavenworth의 Annual May Festival을 관람하는 행사도 세미나를 가진 것이다.

▶주스민 동창회(회장 이훈성 총대 72) - 지난 4월 10일 Clair-borne West Park의 reservation에서 긴급총대(총대 57) 동문회 초대하는 Crayfish Ball 행사를 개최했다. <총대 긴급요>

▶다미고 동창회(회장 황종수 총대 87) - 지난 1월 21일 동문회 총회 회의록 발표 및 학년별 보고회를 갖고 3월 28일 동문회보 제2호를 발간했다. 동문회보는 앞으로 격월간으로 발행될 예정이다.

이다. <19년 참조>
▶뉴욕 동창회(회장 박상원 총대 69) - 올해 첫 번째 글로브볼링을 5월 14일 Malikini Golf Club 에서 가졌다.
▶뉴영림동창회(회장 장수인 총대 70) - 5월 2일 뉴영림에 있는 Mount Major에서 동문 가족들이 같이 참여한 가운데 꽃말이 등장 행사를 실시했다.
▶미국 동창회(회장 김호성 총대 69) - 올해 5월 17일 Oak Brook Marriott에 위치한 Willow Crest Club에서 가졌다.***

영시 해설



배효식(본문대 영문 52CA) Anseli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교수

If there was nobody poor,
And pity no more could be,
If all were as happy as we,
At his cure the sun went down,
And the heavens gave a frown,
Down poured heavy rain
Over the new reaped grain
And Miseries' increase
Is Mercy, Pity, Peace.
(나는 한 사람도 노예하는 것을 보지않았다/ 날이 닳아 떨어질 때 / 자비, 동정, 그리고 평화/ 세상을 열어 준다'라는 노래였다/ 그렇게 그는 온 종일 노래했다./ 새움개 베어낸 잔의 너머 / 호가 절 때까지, 그리고 긴 초가 더미들이 / 관세으로 보일 때 까지 노래했다./ 또는 마지막 자비한 것을 목격하고 / 자비와 자비함이 없다면 너머 / 자비는 그 이상 존재할 수 없다./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그리고 동문도 그 이상 존재할 수 없다/ 모두가 우리들의 행복들이다/ 그가 죽어 가는 때 대안은 없다/ 그리고 죽어 가는 눈물을 쥘수없었다/ 저 먼 곳이 피부없이/새움개 거머잡이 문인 곡식 위로/ 그리고 불행의 증가는 / 자비, 동정, 평화, 평

화라네.)
▶시인 William Blake - 1757년 11월 28일 영국서머셋에서 1827년 8월 12일 서진으로. 또는 화가로서도 이름을 남겼다. 이 시인은 영국의 낭만주의 시대의 시와 예술의 역사 속에서 개성적 역할을 한 예술가라는 칭호를 가진이다. 영국의 BBC 방송에서 2002년 1월 1일 여론조사에서 100명의 위대한 영국인을 뽑았는데 Blake가 38번째로 뽑혔고 그 인기가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그는 대부분의 생활을 런던에서 보냈지만 그의 교회(Church of England)에 대해서는 "조지언 총대"라 비하하기도 했다. 성경에 영향을 받아 그의 종교관은 제물 철학에 입각해서 이해하기도 노력했다. 그는 신전의 St James's Church에서 사제를 맡았으며 당시 연구에 많은 시간이기도 하다.

I Heard An Angel Singing

By William Blake
I heard an Angel singing
When the day was springing,
Mercy, Pity, Peace
Is the world's release,
Thus he sang all day
Over the new sown land
Till the sun went down
And haycocks looked brown.
I heard a Devil curse
Over the heat and the furze,
Mercy could be no more.



사단법인 Voice of Korean Americans (VOA) 미주 한인인의 목소리

모교소식

서울대 총장후보 3명 입학

오세정·강태진·성낙인 교수... 교직원 평가와 총추위 평가 합산, 오세정, 강태진 교수는 4년만에 총장직 재도전

제26대 서울대학교 총장 후보로 3명도 압축됐다. 서울대 총추위원회(이하 총추위)는 지난 4월 30일 오후 회의...

이제 앞서 지난 4월 3일 '오'오정, '성'낙인, '강'태진 후보 3명... 총추위 12명의 후보 대결 중 예...

전 법과대학장 ▶ 오세정 전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 ▶ 조성경 전 경원대학교 총장 5명을 후보자로 선정한 것이다.

5명의 총장 예비 후보자들은 공개개천 발표회를 바탕으로 지난 4월 25일 무작위로 추첨된 교직원...



1호도 총장 후보로 선출된 3명의 교수들. 왼쪽에서부터 강태진(26.재도전공약부) 교수, 성낙인(64.법학전문대학원)교수, 오세정(61.폴리플리머부)교수(괄호란 숫자는 나이)



했다. 공개 소견 발표회에서 오세정 후보자는 정책지식 연구원 설립과 총추교육과정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임의제도 운영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카 지원 프로그램 검토와 등의 방안을 내놔다고 한다. 오세정·성낙인 교수는 4년만에 총장직 재도전에 나서지만 관...

총추위와 이사회에 선택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그간 적신제 방식 총장 선거에 선 전례 교직원들이 참여한 직접 투표가 향방을 바꿨다. 그러나 서울대 역사상 첫 간선제도 피터...



암 표적치료는 '나노수류단'의 원리. 암 표적치료는 암세포 표적에 약물을 전달하는 나노수류단을 이용한 것이다. 암 표적치료는 암세포 표적에 약물을 전달하는 나노수류단을 이용한 것이다.

새내기 여학생 5명 중 1명 "위험음주군"

모교 새내기들인 1학년 여학생 중 20%에 육박하는 학생들이 '위험음주군'에 속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입생을 중심으로 잘못된 대학 생활 습관들이 만들어질 때에 이르러 발생했다.

모교 화학생물공학부 헌택환(화학 83) 석좌교수님

암세포와 자폭, 나노 수류단 첫 개발

기초과학연구원(IBS) 나노입자 연구단장, 암 표적치료에 새로운 지평... 5년 뒤 실용화 예상

기초과학연구원(IBS) 헌택환(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석좌교수) 나노입자 연구단장은 가톨릭대 안원희와 공동으로 암표적치료에 나노기술을 개발했다고 최근 일...

의 na)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다. 또 맥락이나 정상 조직에 비해 표인 산성도가 낮고(pH 6.5 이하) 표인은 음(-)전하를 띤다.

이제 미세한 산화질, 광감각제(빛과 산소를 만나면 화학 반응을 하는 약)를 담아서 암세포에 투여하는 항암제 개발을 하고 있다. 산화질은 항암제를 넣고 빛에 반응해 암세포의 위치를 알리는 '신호탄' 역할을 한다.

공대 재학생 기경환(전기공학) 동문 개발

스마트폰 차단 '앱' 대인기

공대 공대 재학생 기경환(24) 동문은 스마트폰을 차단하는 차단 앱인 '스마트폰 차단'을 개발했다.

앱을 소개했다 한다. 재부팅이 완료되면 앱이 자동으로 실행돼 차단 시간이 시작된다.

마지막 앱스토어에도 등록해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 동문은 "필요로 삼아야 하는 앱이 많지만 스마트폰, 스마트 시계 등은 돌보아줄 무덤이 없는 시간이다. 사용자마다 스마트폰과 떨어뜨려 놓는 시간을 보태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보건전문교수는 지난 날 29일(목) 5월 16일까지 서울대 학부생과 대학원생 4년 304명에게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최근 이같이 발표했다.

신입생을 중심으로 잘못된 대학 생활 습관들이 만들어질 때에 이르러 발생했다. 위험음주군 비율은 2학년(남 15.0%에 17%), 3학년(남 10%에 18%), 4학년(남 11%에 10%) 등 고학년일수록 감소해 나가는 경향을 보였다.

<서울=뉴시스>

한국 대통령 과학장학금 서울대가 절반 이상 차지

대통령 과학장학금 절반 이상이 서울대에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과학진흥지원(예산제정민중연합)이 지난 4월 15일 한국과학기술자협회에서 열린 '2014년 대통령 과학장학금 수여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학기 기준으로 대통령 과학장학금 수혜 대학생 4109

명 중 206명(50.1%)이 서울대 학생이었다.

서울대에 수여된 과학장학금원액(KAIST) 82억(12.9%), 포항공과대 27억(8.2%), 연세대 8억(2.4%), 고려대 6억(1.5%), 삼양관대 2억(1.3%)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은 4년제 대학과 과학계가 분야 최우수 학생을 선발해 등록금 전액과 학기당

200만원의 학업 장려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급액이 서울대가 2002.23억(2012년 2001만 원(35.1%), 2010년 22억 9천 500만원(42.8%), 2011년 23억 6천 800만원(43.4%), 2012년 21억 3천 400만원(46.8%), 지난해 11억 6천 600원(28.3%)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과거와 분야의 최우수 학생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대통령 과학장학금의 수혜자가 서울대에 절반 이상 몰려 있다"고 말했다. <세출 = 뉴스>



창업의 이관우 동문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는 힘

내수비에 따라린 모바일 앱은 출시된 일찍 '이코노'와 '뉴스'를 통해 일찍 홍보를 하고 '도스 트리트', '여객정보'와 '맛집 정보'를 제공하는 '웹스'와 '영'을 제공하며, 또 다른 '비즈니스'를 100여 개에 달하는 소셜미디어 서비스 '데일리'를 운영하며 '뉴스'와 '데일리'를 결합한 '뉴스+데일리'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뉴스+데일리'를 결합한 '뉴스+데일리'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뉴스+데일리'를 결합한 '뉴스+데일리'를 출시했다.

수익을 내지만 회사 규모를 키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느끼고 다른 사업을 모색했다. 이후 사학한 것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일찍 홍보를 하고 '도스 트리트', '여객정보'와 '맛집 정보'를 제공하는 '웹스'와 '영'을 제공하며, 또 다른 '비즈니스'를 100여 개에 달하는 소셜미디어 서비스 '데일리'를 운영하며 '뉴스'와 '데일리'를 결합한 '뉴스+데일리'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뉴스+데일리'를 결합한 '뉴스+데일리'를 출시했다.

2015 모교 면접시험범위 및 적용계열

<공통 출제 문항 활용 모의답변/면접시간 15분 내외, 답변 준비시간 30분 내외>

- ▶인문학-사회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영어 또는 한자 활용 가능)
- ▶인문대 사회과학도 모집단위(경제학부 제외, 간호대-사립대학 포함)에 수험응시 가능
- ▶사회과학-수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영어 또는 한자 활용 가능)
- ▶사회과학도 경제학부, 경영대, 농경제축학부, 생활과학도 소 비자 인문학부, 생활과학도 의류학과(의대)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 ▶자연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영어 또는 한자 활용 가능)
- ▶인문학-사회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영어 또는 한자 활용 가능)
- ▶자연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영어 또는 한자 활용 가능)
- ▶자연과학도 모집단위(경제학부 제외, 간호대-사립대학 포함)에 수험응시 가능
- ▶사회과학-수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영어 또는 한자 활용 가능)
- ▶사회과학도 경제학부, 경영대, 농경제축학부, 생활과학도 소 비자 인문학부, 생활과학도 의류학과(의대)

취/면접시간 60분 내외, 답변준비시간 30분 내외

- ▶자연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영어 또는 한자 활용 가능)
- ▶인문학-사회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영어 또는 한자 활용 가능)
- ▶자연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영어 또는 한자 활용 가능)
- ▶자연과학도 모집단위(경제학부 제외, 간호대-사립대학 포함)에 수험응시 가능
- ▶사회과학-수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영어 또는 한자 활용 가능)
- ▶사회과학도 경제학부, 경영대, 농경제축학부, 생활과학도 소 비자 인문학부, 생활과학도 의류학과(의대)

뉴욕 한인 공연예술기획 박준식 대표 모교 학생 국제교류 컨설턴트 선정



한인 공연예술 기획 회사 '메이저트렌드'의 대표 박준식

이 사업은 지난 2011년 한국에서 165개국 선정을 시켜온 현재 총 400개 이상의 해외 공연장 및 예술 단체와 협력하고 있다. 박 대표는 "미국과 한국 예술계 간의 교류를 증진하고 한국 예술을 해외에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서울대가 주관하고 있다."

박 대표는 "미국과 한국 예술계 간의 교류를 증진하고 한국 예술을 해외에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서울대가 주관하고 있다." 박 대표는 "미국과 한국 예술계 간의 교류를 증진하고 한국 예술을 해외에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서울대가 주관하고 있다."

제외동무 이해 교과목 첫 개설

모교에 재외동무들을 알리는 교과목이 처음으로 개설된다.

이는 서울대가 지난 3월 제외동무포럼과 모교 서울대를 비롯한 국내외 6개 대학과 이해교과목장외교를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대는 자율전공 학부 교육, 교과목을 개설하는 '사이비 교육' 제외동무 포럼을 15주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제외동무 포럼은 제외동무들을 알리는 것으로 마련되었다. 그동안 일부 대학에서 제외동무 포럼을 개설해 왔지만 서울대에서도 제외동무 포럼을 개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제외동무 포럼은 제외동무 포럼을 개설하는 '사이비 교육' 제외동무 포럼을 15주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제외동무 포럼은 제외동무들을 알리는 것으로 마련되었다.

모교가 뉴욕 한인 공연예술 기획 회사 '메이저트렌드'를 컨설턴트(사)로 대표로 선임하고, 박준식 대표가 모교 학생 국제교류 컨설턴트로 선정된다. 학생 오케스트라와 서울은 한국 교육부 학교 예술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메이저트렌드'의 설립장 박준식 대표가 모교 학생 국제교류 컨설턴트로 선정된다.

제외동무 포럼은 제외동무들을 알리는 것으로 마련되었다. 그동안 일부 대학에서 제외동무 포럼을 개설해 왔지만 서울대에서도 제외동무 포럼을 개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생 오케스트라와 서울은 한국 교육부 학교 예술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메이저트렌드'의 설립장 박준식 대표가 모교 학생 국제교류 컨설턴트로 선정된다.

<기획> 5월 가정의 달

가족은 해체되는가



김홍목(문리대 66)

"연한 가족보다 못한 가정" 지내려 할 '속서'가 또한 내 나라의 기암괴혈 '속서' 라는 책을 낸 김홍목(47세)은 가족 내에서 자신의 역할이 커져갈 것으로 기대하며 있다. ...

엘레 붙어 있어 피곤하는 아버지께는 남김도 주지 않습니다. 그 기복은 아버지께서도 ...

"아내는 아내대로 전구 남편은 들이머리 부부라고 소멸해졌다 그 눈을 응시하다 ..."

가족의 의미



박병일(동대 69) VA 미주 동향회 이사

위와 장 진실을 위해서 하루 동안은 물론 마시고 지냈다. ...

"가족이란 무엇인가? 사랑이 있는 것이고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다 ..."

성 비유에 절제를 넣어주고 ...

306의 아이들이 친구보다 먼저 ...

드르 보다는 못하지만 어머니만큼은 성 안에서 비해 부족할 ...

"형인들은 자신의 삶으로 ..."

"어머니는 전례와 근본이다 ..."

어머니가 변칙적이 중요하면 ...

정말 좋았지만 어머니는 ...

어머니가 부모면 어머니는 ...

시েষ 사외에서 중요한 ...

그렇지만 추억이란 ...

카기 의지하면 ...

만일 후기 산인사, 정보 및 ...

다. 부르려는 것은 강한 것을 ...

"안나 여사는 47살에 6남매의 ..."

그저 남편이 죽은 후에도 30 ...

"왜냐하? 권은주 수재복 보 ..."

인간들은 누구나 ...

죽어서 온 편지 없어도 ...

따뜻하다. 예수님도 어머니 ...

어디에 열한 한 가족이다 ...

해 복을복하는 것이다. ...

우리고 또 한 세상 사람이 ...

우리가 살아가는 ...

"그렇고는 약하다이다. ..."

그들보다 더 피 마르고 가슴 ...

이 인간가족들의 ...

전멸을 믿지 못할 것이다. ...

간영희 - 사회적 이슈 2013년 ...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가정



한진미(동대 87) VA 워싱턴 가정상담소 상담사 미주 동향회 총무국장

고 어떻게 가정을 지키도록 설득 ...

"가정"의 달이라 부르는 5월 ...

상당히 높고 필요성에 대해 ...

"우리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

미국 'KIDS COUNT 미국' ...

그러나 가정이 생애배로, 가 ...

"우리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

"우리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

그렇지만 '이론'을 바라 ...

가족 구성원간의 인격적 성장과 ...

"우리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

"우리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

미국 'KIDS COUNT 미국' ...

306의 아이들이 친구보다 먼저 ...

이것이 가정이다. ...

"우리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

가족 구성원간의 인격적 성장과 ...

"우리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

"우리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

미국 'KIDS COUNT 미국' ...

우리가 사는 ...

우리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

"우리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

가족 구성원간의 인격적 성장과 ...

"우리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

"우리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

미국 'KIDS COUNT 미국' ...

우리가 사는 ...

우리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

"우리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

가족 구성원간의 인격적 성장과 ...

"우리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

"우리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

미국 'KIDS COUNT 미국' ...

미주 동문단체 및 동문동맹(일본 중앙·한국일보 인칭) 사공일(상대 58) 전 장관, 류동길(상대 58) 명예교수 LA의 제2차 경제 세미나 강연

사공일(상대 58) 전 제1부 장관과 류동길(상대 58) 출신대 명 예교수 2명이 강연했다. 류동길은 '2014 제2차 경제 세미나'가 류동길(상대 58) 전 장관, 류동길(상대 58) 명예교수로 지난 4월 10일 LA 다운타운 밀레니엄 빌트모어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6시 10분 사공일 전 제1부 장관(한국의역연)은 "세계경제 환경 변화와 함께 하는 전략"을 주제로, 류동길은 "기회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각각 강연했다.

사공일 전 장관은 모교 상대 장학금을 졸업한 중국 기업가와 만나고 해외에서 경영 컨설팅을 하는 대표기업 CEO 겸사립대학에서 연장을 추진해 특종 주제에 대해 듣고, 말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최종 등을 역언했다. 류동길 명예교수는 모교 상대 경제학과 졸업 및 펜실베이니아 대학교를 나와 수진인 경영대학장 부교수, 한국경제학의 부장학, 한국중소기업학회장을 역임하고 출신대 명예교수도 있다.

YTN News HD에서 주최한 이 행사 는 LA를 비롯한 남가주 여러도시 리더들에게 경제와 관련된 강 술을 듣는 기회로 만들어 주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신 있는 강연의 개최가 목 적이였다.

또한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 관 료, 석학 등 배양 관에서 강연 한 강연자, 미주 한인 커뮤니티 에서는 나사스 출신의 자선사업가 연장을 추진해 특종 주제에 대해 듣고, 말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 사진 왼쪽부터 백학자 미주 동맹의 조직국장, 류동길 명예교수, 사공일 전 장관, 김태하-김찬신 동문

기회 제공하는 데 있다. 한인커뮤니티를 대표하는 경제 세미나로서 한인 경제 인식와 지속적인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하 는 목적이였다. 이번 행사는 지난 해 11월 27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제1차 한인 경제정치 세미나에 이어 열린 것

이다. 제1차 세미나에서는 류동 길 명예교수와 전인철 경제부장 등 4명이 강사로 올렸었다. 이같은 행사는 올 11월 제3차 세미나가 열릴 것으로 계획되 어 있다. 제2차 세미나에서는 사공일 전 장관이 "경제 인적사"로 강연했다. (전 주미 대사)·윤용원(전 기획경제부 장

관)·평윤진(서울대 동맹장)·박 재권(전 기획경제부 장관)·이만 후(새누리당 의원)·박세일(서울 대 교수, 청와대 전 사회보장특 수직) 교수 등이 참여해 좋은 것으 로 마무리되었다. **<그림> 사진: 백학자(출대 71) 미주 동맹회 조직국장

이태상(문리대 55) 동문 '무지코' 출간

영문판 '코스모스 칸타타 - 한 국수자의 우수여행'을 냈던 이 태상 동문이 신작 에세이집 '무 지코' (자연을 통해 출판)을 출 간했다.

'무지코'란 '무지개를 보고 기 상으로 내리는 코스모스'를 줄 이 지었다. '행복한 땅살음은 호 기심이다.' '시간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가성적 예술을 통해 어떻게 인생의 가치를 더하는가'와 '사랑'을 주제로 다뤘다.

'은 인간에게 드리는 통찰한 에 시지'라는 이 책에서 저자는 '인생은 길고 사랑은 짧으므로 가슴 뛰는 대로 살아야 한다' 고 말한다. 누가 뭐래도 삶은 제 멋 에 겨워 살아야 후회도 원해도 없 다는 것이다. 열정의 삶을 살 아야 하는 작가의 천재적 재능을 바탕으로 전해주는 진솔한 이야 기들이 잘한한 감동을 일으키는 책이다. '이태상, 코스모스 바다 가가' 등 5편이 있다.***



중국어권 인터넷에서 열화과 번역을 수락했으며 코디미 타인스의 합동출판사 해외부 기자를 지냈다. 미주 중앙일보 편집기 사로도 활동한 저 뉴욕주주 정부 후원언론이 덕해주시는 경 화고 있다. 2년의 역사가 있으며, 저자로 '이태상, 코스모스 바다 가가' 등 5편이 있다.***

첼리스트 김명연(음대 05) 교수 시애틀 한인사회 위해 무료 연주회



최근 잠시미국이 들보인다는 '쇼 페르', 러시아 음악의 대표적 대 가 '투비네티리인' 차이코프스 키 '비제' 등 대가들의 작품중 심으로 '아베마리아' 오페라 '엘미르와 로' '브르켈' 등 의 극중 변주곡을 포함하여 10여 곡의 주악같은 곡들을 연주한다. 김 교수는 이날 연주자는 'NW음 대대학 2015 콘서트에 출연'에 이 사 수직 이상한 조섭 도우리미 다 반으로 도움을 받았었다. 두 곡을 연주할 때 김명연 추 뉴욕주주 정부 후원언론 사, 뉴스지 주미대 유학생연락 사무 사 학위를 취득한 김 교수는 해 의 라진 음악연회를 1위, IMA(IA)마르디 앙상, 중앙일보, 부산 MEC공공 국제대 공연을 다스 지원한 바 있다.

김 교수는 한국와 일본에서 첼 로페스티벌, 이탈리아 카타니아 페스티벌등 음악계 참가와 커데 기를 띄우려는 비록 열정적인, 여어난 음악적 해석과 깊이 있는 선율이 원숙한 음악세계를 펼쳐 준 연첼리스트도 평가받고 있 는 같은은 교수와 지난 3월 27일 이태상(문리대 55) 동문 '무지코' 출간 축하회

예술의 전달, 새롭고화려한 등 국내외에서 북두자의 빛나와 언 주로 국제적 행운자의 호감을 받 아왔다. 학은 물론 후르다니 나, 스페인, 중국 등지의 공연을 단,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과 협 연을 통해 첼로 선율의 조화를 위하난 감각으로 소화해내는 능 력을 인정받고 있다.

'인간에게 드리는 통찰한 에 시지'라는 이 책에서 저자는 '인생은 길고 사랑은 짧으므로 가슴 뛰는 대로 살아야 한다' 고 말한다. 누가 뭐래도 삶은 제 멋 에 겨워 살아야 후회도 원해도 없 다는 것이다. 열정의 삶을 살 아야 하는 작가의 천재적 재능을 바탕으로 전해주는 진솔한 이야 기들이 잘한한 감동을 일으키는 책이다. '이태상, 코스모스 바다 가가' 등 5편이 있다.***

한인 교수가 있는 기회" 라고 말했다. 임지는 동문은 모교 음대 선악 과, 한국 예술종합학교 오케라과 를 졸업한 정경 클라리넷 실가지 단 겸라파, 뮤지컬, 삽, 영화 '인구 11', '안산의 풍광', 드라마 '미남' (OST)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있다. 대 역로 드류공예 세 부 품의 판매 를 느낄 수 있도 록, 또 이연은 악회를 위해 특 별히 준비한 동 문들과 함께 연주회를 열기로 결심했다. 이번 공연에는 한영동 오케스트라를 초청 소개했 다. 이 곡은 누구나 쉽게 모교 를 유망한 것으로 8월 한수준 전달했지만 원만한 연주회 열 린도 가 되리도록 신장했다' 다

재미과학기술인공공학자 위원단 구성

한인 과학기술자 두뇌 모지기 위해 한국 산업융합자원의 지원 하에 구성... 한국 인제, 미국 과 RFD 공동사업 협외 모색

지식서비스 등 새 산업분야에 걸쳐 지원단 함께 인제에서 결 성수하여 자력심사 후 100명의 위 원을 한국을 최종 선발할 계획이 다.

최종 선발자들은 향후 산자부 의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 위원 으로 활동하면서 국제기술협력 사 하에 한인사회의 평가기준도 로 활여한다. 또한 산자부 는 KSEA가 구성한 위원들의 연구부 아 등공로, 한국 측 연구진 과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여 컨질협, 과제기회, 과제수행 등 에 실시사업수행차이월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KSEA 는 이번 지원단 구축이 한 데 한인과학기술자들이 할 RFD 공동사업 참여를 조직해 줄 것임을 노는 교부모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화 702-748-1221, sejong@ksea.org



소프라노 임지는(음대 02) 동문 시카고에서 공연

시카고 중앙일보 창간 35주년 특 별음악회로 스크리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소프라노 임지는(사진 오은옥) 학은 지난 해 27일 시카고의 스크리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열

린 시카고 중앙 일보 창간 35주 년 특별음악회 에서 테나 임지 의와 함께 공연 할 예정이다. 한국에서 일국 한인 동문은 이 번 동문은 동문 특히 유망한 등 부 품에 대해 세 부 품의 판매 를 느낄 수 있도 록, 또 이연은 악회를 위해 특 별히 준비한 동 문들과 함께 연주회를 열기로 결심했다. 이번 공연에는 한영동 오케스트라를 초청 소개했 다. 이 곡은 누구나 쉽게 모교 를 유망한 것으로 8월 한수준 전달했지만 원만한 연주회 열 린도 가 되리도록 신장했다' 다

"타인들에게는 한국의 포크송 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 라고 말했다. 임지는 동문은 모교 음대 선악 과, 한국 예술종합학교 오케라과 를 졸업한 정경 클라리넷 실가지 단 겸라파, 뮤지컬, 삽, 영화 '인구 11', '안산의 풍광', 드라마 '미남' (OST)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있다. 대 역로 드류공예 세 부 품의 판매 를 느낄 수 있도 록, 또 이연은 악회를 위해 특 별히 준비한 동 문들과 함께 연주회를 열기로 결심했다. 이번 공연에는 한영동 오케스트라를 초청 소개했 다. 이 곡은 누구나 쉽게 모교 를 유망한 것으로 8월 한수준 전달했지만 원만한 연주회 열 린도 가 되리도록 신장했다' 다

이번 사업은 산자부가 추진하 는 '고급투자 역량 강화를 위 한 인제-코리얼 센터' 을 미국 산자부와는 물론이 라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5 천여명에 이를 RSEA는 우수한 한인과학자를 구성한 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한 것. KSEA는 기계 및 화학, 전기-전자-정보통신-화학-소재, 의거, 에너지·자연



김문수(상대 70) 경기도지사

버지니아 코리안 벨 가든에 1천만원

공민회 '코리안 벨 가든'에 방문객이 20만 명이 넘었다

버지니아 비엔날레에 초청된 코리안 벨 가든이 한미 양국간 우호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지난 24일 24일 코리안 벨 가든에 위치한 '테드수 벨 가든'을 방문, 북미버지니아 지역 자원 담당(NRPA)에 1000만 달러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0년에 코리안 벨 가든 조성을 위해 10만 달러를 지원한데 등 직접적인 도움

을 준 바 있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금은 코리안 벨 가든의 유지 및 보수 비용으로 사용된다. 또 김병두 NRPA 사무국장은 "코리안 벨 가든은 북미지역에서 유일한, '가장한 한국적 정서'를 이룬다" "한국 정부의 정책으로 한국의 문화와 전통적인 지역을 소개하는 벨로소 자리잡고 있다" "그에 따르면 코리안 벨 가든이 조성된 후 테드수 벨 가든을 방문하는 방문객수가 계속 20% 이상 늘었다. 다른 공원에서 접할

수 없는 특별한 매력에 있기 때문이라는데 그의 설명이다. 브라이언 넵 NRPA 이사장은 "코리안 벨 가든을 통해 이주민과 한국 정부, 미국 주무부와 한인사회간 협력 관계가 더 굳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오랫동안 이 자리에서 한국의 빛을 알리는 공간으로 남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도지사는 NRPA에서 유 지 보수비 100만달러의 증서를 전달한 후 "우리가 함께 만든 코리안 벨 가든에는 경기도인과 한인인의 모두의 마음이 담겨 있다"며 버지니아주와 경기도의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관현악에는 공민회와 관객들을 비롯해 새롭고 바에어스캐틀리 수퍼바이저 위원장, 록 헤리티지 수퍼바이저, 케시턴 힐 헌신 수퍼바이저, 또 한인단체장 등이 다수 참석했다. 코리안 벨 가든은 한미문화재단(대표 이현범)이 2008년부터 설립을 시작, 2012년 5월 관공했다. 한국적 정취와 '평화의 종'을 비롯, 한국식 정물화와 서예품이 조성돼 있다. 주소: 9750 Meadowlark Gardens Ct, Vienna, VA 22182 ***

경북 홍중경(문리 76) 대사 LA방문



'문화로 통하는 경북...새 관광 명소 속속 등장' 문화외교 활발, 새마을 운동 세계화 박차

경상북도 홍중경(문리 76) 국무판공대사(대사)가 LA를 찾았다. 지난 3일 19일 LA한인문화공회소사로 주최한 '경과와 새마을 나이트'에 김관용 도지사를 대신해 '새마을인' 김도범 리더십'을 수상하기 위해서다. 행사에 앞서 언론사를 방문한 홍 대사는 "국제사회에 한국문화와 알리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의정사를 받은 것 같다"고 크게 인사 뒤 헌정된다고 있는 경북의 문화홍보사들을 소개했다. 그는 "경북은 문화사업은 통해 유네스코유산 등 신종국과 외교관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경우 세계문화유산으로 500만 명이 다니는 대성당을 이루고 있다. 또 한·중·인문공동체위원회 설립, 해외 시민들의 정서와 교류를 증진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대사는 경북주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 하나로 꼽히는 새마을 운동을 세계화해 대외적으로 알렸다. 그는 "새마을 운동의 세계화를 추진할 계획 이라고 언급하고 아시아 2개국에 17개 문화를 가진 해 주민들을 돕는 중"이라며 "UN과 협의해 가난한 나라에 새마을 운동을 보급할 수 있는 국제기구도 창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대사는 최근 경북의 관광개발을 소개하며 "새마을이 관광에 대해 1500억 원의 투자에 통해 "경북은 제과 세계 물 포문을 유망하는 등 미래 한민족에 한국에서 살 때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대사는 "국제사회에 한국문화와 알리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의정사를 받은 것 같다"고 크게 인사 뒤 헌정된다고 있는 경북의 문화홍보사들을 소개했다. 그는 "경북은 문화사업은 통해 유네스코유산 등 신종국과 외교관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 터키 이스탄불에서

신현근(문예 70) 동문 뉴욕 CHD 교수로

한국어 정신분석학 언어 과정

뉴욕의 Human Development Center(CHD)에서 정신분석학 언어 과정을 한국어로 제공하고 있다. 또 뉴욕 언어 정신분석학 언어 학회 회장도 한국어로 맡을 수 있다. 신현근(문예) 박사가 지난 20일에서 CHD에서 개강한 정신분석학 언어과정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917-270-6099). 신 박사는 모교 MFA 학업을 위해 뉴욕에 왔다. 이후 급용전 등에서 일하면서 언어를 다양하게 배웠다. CHD는 지난 2002년 지금까지 북미와 여러 나라에서 정신분석학 과정 수업의 중요한 후원자들과 다들 제공한다는 취지로 수장 제로워워. 박사가 설립했다. 5.11 테러를 거치면서 বিশ্ব사회의 화제가 되고 있다. 신 박사는 심리 상담을 치료 전문 상담사로서 자격취득을 완료할 필요성이 대두했다. 정신분석학가 되기 위해서 4단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교육실습 및 개인분석으로 스스로의



상태를 전환하는 것이 1단계이다. 22주짜리 정규과정 수업인 2단계는 끝내는 4월 7일 7일이 걸린다. 3단계 실재 상담 수업은 임상감독과 함께 하는 과정이다. 4단계는 학과에서 시범을 거쳐 정신분석학가 된다. CHD에서는 4년제를 모두 한국어로 제공한다. 그런데 지난해 4월 7일 1단계 센터에서 두 명의 첫 번째 졸업자가 배출했는데 신 박사가 이 중 한명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 것이다.



이현범(문예 81) 동문 '노보코릴' 공연

이현범 동문(문예 81)과 노보코릴 팀이 연주하는 '노보코릴' 공연은 준비되고 있다. 노보코릴은 'New Chorale' 이라는 뜻으로 정기 연주회를 지난 4월 13일 뉴욕 라이드리에서 가졌다. 송한 단장은 "2012년 3월 31일

연도 공연이 지난 해 1회 공연 때 반년이 너무 좋아 두번째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보코릴은 서울대학교와 이현범 동문들이 주도하는 성악 앙상블이다. 송한 단장은 "노보코릴은 2012년 3월 31일

독일 베를린 국립음향연구소 오케스트라 지휘를 맡고 있다. 이현범 동문은 '노보코릴' 팀을 이끌고 있다. 노보코릴은 'New Chorale' 이라는 뜻으로 정기 연주회를 지난 4월 13일 뉴욕 라이드리에서 가졌다. 송한 단장은 "노보코릴은 2012년 3월 31일

삼가 죄의를 표합니다

- ▶분류번호(의대 43) 동문 장모 (할아버지)이시상 : 지난 5월 30일 메릴랜드에서, 장모는 5월 1일(목) Rockville MD 에 위치한 세로소 장모교회에서 이별한 목사기도 하였다.
- ▶서울윤치대 57 동문 송혜 : 지난 5월(수)에는 연가자 21일 8월(Cincinnati) 별세했다.
- ▶김대균(공대 68) 동문 별세 : 지난 3월 24일 시카고에서, 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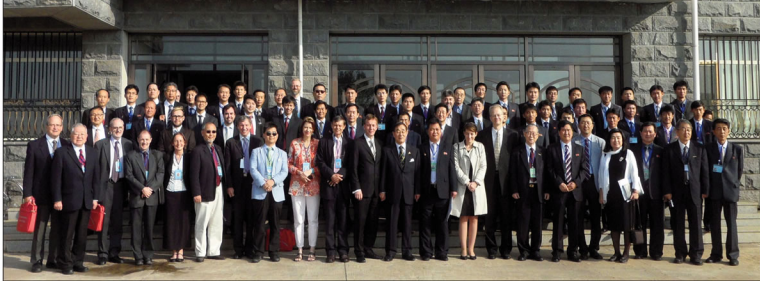
한테라 동문 한국어 가야금 송화공연

한테라의 미술관 순회, 모교 서울대에서도 공연



가야금 연주자 한테라 동문(대 국악과)이 뉴욕과 한국 등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다. 한테라 동문은 지난 4월 11일 시카고에서 부산상을 모셨다. 송 동문은 "부산상은 모교(서울대) 동창회와 교수로, 2012년 11월 24일 서울에서, 김

신운을 들려주고 있다. 연주자들은 장미희 작곡가의 평창의 사계 중 '눈'을 가야금 독주로 연주한 작품을 소개했다. 공연을 위한 '다섯 개의 계절' 공연도 있다. 대부분 세계 요요 국악이다. 64세 국악계 최고령자로 한테라 동문은 한국 고전무용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2010년에는 한국인 가야금 연주자를 처음으로 초청해 공연을 인도했다. 한테라 동문은 지난 4월 19일에는 한국 문화재단에서 열린 장미희 작곡가 송화 공연이었다. 이 23일 서울시립미술관, 30 일 국립현대미술관, 5월 7일에는 모교 서울대학교 미술관 등에서 공연했다. 송화 공연은



이강원(공동 66)교수의 평양과학기술대 방문기

한민족 젊은이 우수성 남북이 공통

로드 아일랜드대 교수 이강원(공동 66) 박사가 지난 해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평양 과학기술대학에서 열린 국제 학술포토 콘퍼스에 초청을 받아 10월 7일부터 북한을 방문했다. 이강원 박사의 방문기는 로드 아일랜드대 지어 열자리에 실린 것으로 뉴잉글랜드 동맹회 관상래(수의대 02) 전 회장이 번역해 관련 사료와 함께 동창회에 보내와 이를 전제한다.

<대집주관 >

이강원(공동 66) 교수는 지난 1979년 미트가스 누처기 주립대에서 지반 공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은 후, 뉴저지 코네티컷 대학교 고산도로 화공공사를 같이하면서 도로공학에 흥미를 느껴 어스먼텍스스 주립대 대학원에 입학했다.

1982년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도로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사우디 아라비아에 설립된대학교 조교수로 1985년까지 사우디 아라비아의 도로발 건설에 참여했다. 물론 물류이 외국과 고속도로망 구축에도 기여했다.

그의 실험으로 북한은 대한민국의 이상 전후구현 경제발전이 박사의 대응으로 시작할 경우 고속도로가 일일을 했다고 믿었기에, 그는 황상 이북 측 북한의 부친한 교통망이 경제원천 요인 중 하나임을 가늠 아르게 생각해 왔다.

한민족의 한 사람으로 또한 민족적인 로드아일랜드 주립대에서 도로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독일은 통일을 했는데, 우리는 왜 통일을 하지 못하는가' 하고 질문하면서 부끄러움과 가슴 아파를 했다.

지난 해 그는 안식년을 얻어 그동안 한국과학기술원(Korean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or KAIST)과 모교 서울대에서 가운 학기 장의 더 먼 구를 하게 됐다.

그러면서 그동안 평양에서 열린 제2차 평양과학기술대(Pyongy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or PUST) 국제 학술포토 콘퍼스를 받아 북한을 방문하게 되었다.

다음은 이강원 교수의 북한 경험 일담이다.

▶평양공항에서 박찬도(공동 54) 총장의 영접반어 = 10월 7일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북경공항에 도착, 그리 비행사 편으로 평양과학기술대를 공동장철한 김진경 총장의 영접을 받았다.

비행기가 출발하자, 결코 아맛따운 여승무원이 옆에 앉아 어승무원이 나에게 이것 저것 물고 눈웃음 친절을 베풀었는데, 가까이 들었으면 "미인제" 정도도 있었으리라 하고 그제서야 친절만 받았음을 고백했다.

열차 후 사치의 평양의 순안공화시 데리니 평양과학기술대를 공동장철한 노은 박찬도 교수총장을 방문하고 호환식당에 들리려고 공방을 먹었는데 10달러의 가격을 증가할 만큼 맛있는 음식이었다.

다음 날인 10월 9일 오전 만수대를 방문하고 국제회의 개회식에 참석했다.

그런데 이날 만난 주재 강연자 우주인 Dr. David C. Hilmers는 정일 인상이었다.

그는 모교 도시의 우수비행을 한 후 41세에 미 해병대에서 은퇴한 뒤 Baylor 의과대학에 입학했다

▶우주인 David의 인상적 강연 = 다음 날인 10월 8일 오전 영어를 매우 잘 하는 평양과학기술대 학생과 교수들 연대로 조반을 마치고, 학회 리 널 프르모에게 참석했다.



1차 사정은 지난 해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평양과학기술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제 학술포토 콘퍼서 참가자들이 박찬도 교수총장(가운데)과 함께, 오른쪽 사진은 김진경 총장과 함께 한 사진이다.

원래 여정으로는 학회 후 강강산 관광을 하게 돼 있었으나 여정이 너무 촉박했던 관계로 강강산으로 가지 못하고 대신 평양 시내를 관광했다.

대동강의 아름다운 경치를 둘러본 후, 주체탑과 길일성 광장을 방문하고 호텔 식당에 들리려고 공방을 먹었는데 10달러의 가격을 증가할 만큼 맛있는 음식이었다.

다음 날인 10월 9일 오전 만수대를 방문하고 국제회의 개회식에 참석했다.

그런데 이날 만난 주재 강연자 우주인 Dr. David C. Hilmers는 정일 인상이었다.

그는 모교 도시의 우수비행을 한 후 41세에 미 해병대에서 은퇴한 뒤 Baylor 의과대학에 입학했다

그는 참가자들에게 "나의 분사가 북한에 필요할 것 같아서 왔으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아미한 일도 하고 싶다" 고 말했다. 이어 "우리 모두는 나이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조화로운 평화로운 세계를 유지하는 것은 가치 있고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역설했다.

오후에는 "경제개발과 환경 보존을 동시에 추구하는 장수 녹색사회의 기간 시설과 운영체제" 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이날 참석된 20여 명의 평양과학기술대 학생, 교수, 북한 전문가들과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평양과학기술대 학생들 수준 상상외로 우수 = 질문을 주고 받은 평양과학기술대 학생들의 영어 수준은 상상했던 것보다 우수했으며, 매우 정중하고 우호적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사상이면기에는 앞으로 몇 년 동안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들의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사상이면기에는 앞으로 몇 년 동안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들의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사상이면기에는 앞으로 몇 년 동안의 변화가 필요하다.

상을 받았다.

또한 장수 녹색사회의 기간 시설은 경제발전과 사회주의를 이룰 때 필수조건이므로 필는 바, 현재 북한의 도로 시설은 너무 오래되고 낡은 것이라 앞으로의 경제발전에 지대한 장애물이 될 것으로 사료했다.

10일에는 여러 발표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FIST 학생, 교수, 원로가)의 의견을 나누었다.

FIST 학생들의 발표 중 다우먼, 즉 "Lane Detection for Driver Assistance Systems" and "Study on Lane Changing Using Virtual Road Curvature in Autonomous Vehicle Robot" 은 많은 관심을 끌었다.

FIST 학생들이 보여준 친화적인 관습은 감명을 끌었다.

역시 우리 한민족의 우수성은 북한이나 남한의 젊은이도 같다고 느껴졌다. 따라서 우리 한반도가 통일되어 이따기만 젊은이들이 서로 자유로운 분기화해서 공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성취도가 클 것인지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금치 못했다.

<다음에 계속>

—왼쪽 사진은 우주인 Dr. David C. Hilmers와 그의 아내인 사진은 나의 강연후 토론자들과 함께 한 모습이다. Dr. David는 "우리 모두는 나이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조화로운 평화로운 세계를 유지하는 것은 가치 있고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역설했다. 참가자 모두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신항원(법대 60) 명예교수

‘통일은 대박이다’ 강연

VA 우레속에서 유재봉 교수도 참여

“통일은 대박이다”의 저자요, 또 지난 해부터 미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이른바 통일 강연을 해 오고 있는 신항원(법대 60) 중앙대 명예교수가 지난 4월 4일 버지니아의 우레속에서 강연회를 가졌다.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와 버지니아 한인회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강연회에는 신항원 교수의 동거인 유재봉(법대 61) 명예교수(Loyola Univ, Maryland)의 통일 강연도 함께 이루어졌다.

신항원 교수는 이날 “우리 민족의 영원한 통일이 되면 경제적으로 비약적인 도약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정말 대박일에 틀림없이 될 것이다”며 우리 국민들에게 통일에 적극적이기를 바라는 뜻을 일깨워 주기를 기대했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지금까지 통일에 대해 근본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며 정치적 군사

적 관점에서만 해설하려고 하는 것은 통일을 더욱 어렵게 만든 요인”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통일이 우리에게 무관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며 “앞으로는 워싱턴 DC 지역을 비롯한 미주 동포들이 통일운동에 적극적으려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원 코리아 파운데이션 대표인 유재봉(법대 61) Loyola대 명예교수는 “우리 한민족에게 통일은 필수적인 일로 여기에는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첫째는 현 상태인 분단의 계속이며 둘째는 군사적 통일, 셋째는 정치적 통일 넷째 북한 정권의 붕괴, 다섯째 경제적 통일이 될 것이다.

유 교수는 이 가운데 경제적 통일이 가장 바람직하다고도 권고하고 이를 위해 조국에서는 미국



↑ ‘통일은 대박이다’ 강연의 후 들들을 총 일파가 신항원(한복에서 다섯번째) 교수의 기념사진을 촬영한다.

민력, 해외에서는 범 동포적 결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유교수는 “정치적 통일은 바람직하나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군사적 통일은 가장 문제와 하며 흡수 통일 또한 혼란사태로 인한 손실이 너무 커지

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항원 교수와 유재봉 교수는 50대 동거생이나 고공작업도 서고 유교수는 두 교수의 강연회는 10년 전 약속 파문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다. 이들은 고교 졸업반이던 1969년 통일을 위해 작은 역할을

라도 해보자는 데 뜻을 같이했는데 미주 강연회를 개최하며 그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것이다. 두 교수는 워싱턴 DC를 시작으로 12월까지 뉴욕, 델라웨어, 펜실베이니아 등지에서 강연회를 계속했다. <관계기사 6-7면>



▶4대연에서 계속

▶**반문학과 개성 관광** = 11일에는 평양과 개성 대외사범부 직원들 안내로 반문학과 개성을 둘러 보았다. 6.25 한국전쟁 최초의 정전회담이 열렸던 피의 장소는 아직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책상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한때 러일의 말로는 ‘유대 대표(미국 대표)인 피담장이 이복 딸이었기 때문에 집이 나시 금리 들어가나라고 유언하고 있고 갔다’라고 설명해 쓸쓸한 웃음을 감지 못했다. 볼만 비무장 지대는 우리 민족이 양단을 상징하는 것으로 승돈 기념에 제1호로 단시위가 뜨거워졌다.

오후에는 개성 방문을 했다. 다시 쓸쓸해진 마음을 잊었는지 RST 대사부 직원 안내로 개성에서 가장 음식을 잘 한다는 식당에 들었다.

개성은 또 옛날 상권을 쥐고 있던 보습동들이 분부가 있던 곳으로 들은 얘기에 의하면, ‘남편들이 집을 짓고 장사를 떠나면 부

? 몇 탁막죽음이 많이 나오는 탁막죽로, 가뭄이면 근근로 풀이 적었다.

인들은 하루 한 가지씩 반찬을 마련, 남편을 위해 남겨 두는데, 남편이 돌아오면 남겨진 반찬을 차려 고단한 남편을 대접했다”고 한다. 우리 일행이 들은 것이 바로 그러한 13가지 반찬으로 식사하는 식상이었는데, 역시 그 평화에 못지 않게 슬픈 맛이 내렸다.

▶대동강변에서 바라본 평양모습



우 좋았다. ▶**신숙교와 박인폭포** = 개성은 옛 고려 시대의 많은 유적이 있는 곳이며 흥미를 볼수있다. 옛날의 성곽만이 그대로 보존돼 있었는데, 그 옆에 대학을 설립하고 ‘성균관 대학’이라 부르고 있었다.

▶13가지 반찬이 담긴 매우로 평만에 못지 않게 맛이 좋았다.



↑개성의 가장 유명한 유적 가운데 하나인 ‘성균관’ 앞에서.

개성은 또 포은 정몽주 선생이 이성계의 아들 방원에게 암살당한 선숙교가 있는 곳으로 다리 위에는 그 흔적을 볼수 없으나 팔방한 10개의 가랑잎이 을 세운스럽게 꾸며고 있었다. 개성은 고려왕국의 시조인 왕건의 고향으로 왕건의 묘가 있다.

▶이런의 평양 방문이 내게는 처음이라 모든 것이 생소하고 많은 의문점이 있었으나, 방문하고 하고 했던 계획과 관찰을 충분히 할수있다고 본다.

평양개성대 국제학술대의 참가는 내 나라대로 북한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어느 날 통일이 되는 날 우리 국도가 ‘부산에서 시작해 서울과 평양을 거쳐 만주의 시베리아를 지나 유럽으로 향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를 전심으로 기원하는 바이다. <<강>>

▶이강원 교수의 영문 기행문, 운상례(수외대 62)는 신실원 밖역

마지막으로 안내받은 곳은 이름난 돌진 폭포였다. 이곳 시대 가장 유명했던 가래 황진이 놀던 곳으로 아름다운 폭포는 옛과 다름 없었는데, 그 아맛다운 황진이 모습이나 그 청아한 목소리와 가야금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이런의 평양 방문이 내게는 처음이라 모든 것이 생소하고 많은 의문점이 있었으나, 방문하고 하고 했던 계획과 관찰을 충분히 할수있다고 본다. 평양개성대 국제학술대의 참가는 내 나라대로 북한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어느 날 통일이 되는 날 우리 국도가 ‘부산에서 시작해 서울과 평양을 거쳐 만주의 시베리아를 지나 유럽으로 향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를 전심으로 기원하는 바이다. <<강>>



↑ Korea Music Foundation을 조직해서 음악인을 후원해오고 있는 이순희(음대 57) 동문.

뉴욕 동향회

한국 대학 동창회 총연합회 협력 음악 concert 공연 안내

▶대학총회 협력 = 지난 4월 4일 금강산 연회장에서 뉴욕지역 한국 대학 동창회 총 연합회 제 16대 회장 이희익이 있었다.

이날 이 지어 23개 대학에서 총 68명의 동창회 관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뉴욕지구 한국 대학 동창회 총

↑ 뉴욕지역 대학 동창회 총연합회에 참석한 시카고 동창회 동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왼쪽부터 이진구(농대 60) 미주 동창회 전 회장, 박상원(음대 68) 뉴욕 동창회장, 임지은(음대), 진봉일(음대 50) 동문, 김형태(음대 53) 동문.

연합회는 이 지역에 있는 한국 대학들의 동창회를 연합한 단체로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경희대학교 동창회의 김영길 회장과 총연 회장 취임식이 거행된 것이다. 서울대 뉴욕 동창회에서는 9대

미주 동창회장 이진구(농대 60) 동문과 김형태(음대 53) 동문이 과거에 각각 6대와 12대 회장을 맡아서 '젊음의 광장', '차세대 지도자상', '코리아 퍼레이드' 등 각종 동창회의 연합 단체로서 동문들의 차세대 교육과

동창회간의 친목 및 사회봉사를 한 바 있다. 김영길 회장은 취임사에서 각 대학 동창회를 애정 어린 눈으로 봐 주실 것을 당부했고, 대학 총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이희익 회장은, 이진구, 김영길 전 대학 총연 회장을 비롯해서, 필자(박상원), 진봉일(장대 50), 문영수(공대 78) 총연 장학생 위원장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soprano 박상원(음대) 동문이 축하를 불러 회장을 축하했다. 또한 한자에서 시가라고 연주하여 중이던 classical pop singer 임지은(facialin@armail.net) 동문이 아름다운 노래를 선사해 많은 관객을 받았다.

뉴욕지역 대학 총연은 5월 28일 Split Rock Golf Course에서 장학금과 대학 동창회 대학 장학금을 개최한다. '독수리'로 이름이 붙은 이 골프 대회'는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 것으로 뉴욕 중앙일보가 후원하고 있다.

서울대 동창회가 있는 각 지역에도 이와 같은 대학 동문회 연합회가 있는 것이 있는데, 미국적인 관료로, 대학 동창회와의 유대관계와 힘을 합쳐 사회봉사를 좀 더 크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된다.

▶음악 concert 공연 안내 = 지난 4월 15일 Lincoln Center의 Alice Tully Hall에서 열린 김진창과 Piano Concert에 대해 뉴욕 동창회와 직원들이 초대연을 마련해 동문들에게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했다.

이 concert는 이순희(음대 57) 동문이 적극 후원한 것으로 이순희 동문은 Korea Music Foundation을 이끌어 오고 있다.

이순희 동문은 이 조직을 통해 뉴욕을 무대로 하는 역망있는 음악인들을 뉴욕의 여러 무대에 데뷔시키는 일을 비롯해서 그들과 연계를 맺고 인추부 후원해 오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19일 Carnegie Hall에서 열린 뉴욕 필하모닉 바 이올리니스트 오우영 concert의 감상을 위해 동창회 직원들의 초대연을 마련하는 등 '친대를 한 바 있다. 동문들을 위해 코르티나(ticket) 구입 등에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날은 서울대 유래 공연소로 일컫는 풍류정 양승 개스트로 초대하는 등의 무대 개신도 마련했다.

▶ 박상원(음대 68) 동창회장



골든클럽 컴퓨터 교실 및 산행

▶컴퓨터 교실 = 뉴욕 골든클럽(회장 이순희 음대 48)이 지난 해 5월 14일 개강해 12월 17일 겨울방학 때까지 7개월간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진행했던 컴퓨터 연구회가 커다란 인기리에 지난 해 말 다시 개강하였다. 지난 회원들에 추가하여 재학생(67)·인원(총대 63)·이대연(악대 65)·인도-장영식 회원이 새로 합류하며 강의실을 가득 채우고 있다.

최수용(상대 55) 원장께서는 올해의 교육목표로 'Adobe Audition'을 주제로 백장짜리, 노래 편집 및 저장, Email 음악 발송, 카페 및 사자에게 보내는 요청을 배우면서 각자 수준에 적합한 컴퓨터 활용 방안을 익숙해지는 것으로 설정하고 우선 회원들의 컴퓨터에 필요한 기본 프로그램 설치를 시작하였다.

↑ 골든클럽 컴퓨터 교실의 회원들이 컴퓨터 배우기에 한창이다. ▶산행에 나선 골든클럽 회원들이 비워놓은 길에서 삼삼오오 점심 식사 중이다.

지난 2월 처음 참석한 장영식 회원은 강의가 끝난 후 양외교(농대 58) 장사와 동문으로 삼삼오오트북을 구매했고 적극적으로 컴퓨터를 배워 보겠다는 의지를 다짐하였으니, 빠른 기간에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기대한다.

▶산행 = 골든클럽 회원 중 일부가 지난 4월 27일 산행을 실시했다. 오랫동안 겨울 날씨에서 벗어나 봄다운 따스함을 느끼며 산행을 할 수 있었다. 그들은 뒷산면에는 아직도 잔설이 남아 있었지만, 계곡에는 눈 녹은 물들이 넘쳐 흐르며, 계곡을 걷면 레터라 마늘 풀이 한



발의 조심스레 건넌곤 하였다. Parking area Trailhead에서 풀을 줄고, 계곡을 따라 올라가 마미늬션 길에서 온경에 부엉이가 온민해 온 삼삼오오를 구워 먹고, 복숭아를 나누어 먹은 후, 마더분에서 고구마도 구워먹었다. 이준행 회장께서는 "배고고 밥을 이렇게 맛있게 먹어 보기는 처음" 이라고 감탄하였다. 조수아 회원은 어느새 무릎나

무가 밀집한 지역을 알아내고는 "산나물 중 최고가 두릅나무들이야. 한강 때인 5월 초에 두릅나무 뿌리 산행을 계획하자" 고 제안할 했다. 이날의 산행 참가자는 김계경(2)-손경택(2)-송성순-이준행 회장, 조달훈-조승자-홍광만/홍계정 동문 등이다.

▶글 사진 = 홍종민(공대 64)



시카고 동향회

우래옥에서 제1차 이사회

시카고 동향회(회장 김보영·상대 88)가 2014년도 올해 이사회인 제1차 이사회를 지난 3월 22일 시카고 근교 한식 레스토랑 우래옥에서 개최했다.

이날 50명의 이사와 가족을 포함한 총 82명이 참석하는 식사 후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동향회를 위해 봉사할 20여 이사를 선출하고 지난 2013년에 임기가 끝난 여러 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감사의 시간을 가졌다. 시카고 동향회 전 회장(동문 1) 이사회의 후속작 'Ice Dance'이라는 주제의 음악강연을 이영우 동문은 러시아의 여러

작곡가들에 대해 소개하고 그들의 여러 소의 동계 올림픽을 비롯하여 여러 아이스 스케이팅 국제 대회에서 길이나 스노 등에게 대해 특별 음악으로 이용되는 장면들을 아이스 스케이팅 영상과 함께 제공해 이를 감상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런 이사회에서 시카고 동향회 주사들을 새로 발간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2008년 시카고 동향회 창립 25주년을 기념해서 주사들을 발간한 이후 2014년도에 개간이 없었어 이번 2014년도에 개정된 주사들을 발간하기로 하고, 동문들도 부러 주사 업데이트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같은 주사들 편집을 위해 동



의 새로운 주사와 전화번호, e-mail 주사 등을 동향회 웹사이트 snzaachicago@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카고의 Judson 대학에서 유세교로 재직 중인 이소정(동대 84) 동문과 김기봉(동대 87) 동

1 시카고 동향회 동문들이 부부 동반으로 지난 3월 22일 한식 레스토랑 우래옥에서 들것 이사회를 진행했다. 김보영 동문회장이 이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문은 주관하여 지난 7년 동안 매년 개최해 온 음악회가 지난 3월 22일 시카고 근교 레스토랑 우래옥에서 개최되어 많은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더욱 빛내주었다.

시카고 동향회의 인건부 부가금(약대 05)이 co-ordinate 하여 시카고 동향회 동문들을 위한 취미 클럽인 '오케라 동아리', 'Book Club 동아리', '미식가 동아리' 등의 3개 취미클럽을 만들었다. 그래서 해당 분야에 애호가 있는 동문은 운영자들을 위해 각자의 협력을 이끌어 가고

있다. '오케라 동아리'는 이영우 동문(문대 66) 9주연으로 지난 4월 5일 21명이 참석하여 AMC 극장에서 'The Met: Life in HD'로 Met Opera를 감상하였다. 또한 4월 23일에는 Costi Fan Tutte를 감상할 예정이다.

'Book Club'은 시카고 대학의 도서관에서 한국서적을 판매했고 있다. 동향회 동문(사대 72)이 담당하여 첫 모임으로 지난 4월 19일 한식당 우래옥에서 만나 모임을 가졌다.

이날 동아리 회원들은 식사를 하며 바쁜 사무원의 단선소설 중 '무치른 근자', '웃음 발린 식탁', '그 여자와 짐' 등 3권의 단선소설을 읽고 느낌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동문들이 누구나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있다. 참가를 원하는 동문은 동향회 연락을 받고 있다. '미식가 동아리'는 김보영 동문(여대 06)이 담당하고 있다. 이 모임은 첫번째 식사 탐방으로 5월 3일 토요일에 시카고 근교 Mount Prospect에 있는 Earth & Ocean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같은 동아리 모임 소식과 시카고 동향회 소식들은 시카고 동향회 웹사이트(www.snzaachicago.org)나 시카고 동향회

주간 영문 소식지(동문 05)의 음악이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동향회 회원들이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시카고 동향회

<사건> 노영일(동대 62) 김동희(공대 66) 김교희(상대 69) 시카고 동향회장



'봄맞이 가곡의 밤' 미래를 여는 음악회

Judson 대학 이소정(동대 84) 교수, 바리톤 김기봉 동문 출연

"우리에게 익숙한 한국 가곡들을 주제별로 나눠 고향의 조곡의 아름다움 등하에 젖어드는 소중한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3월 30일 오후 7시 시카고 팰리머인 소제 커티지 홀에서 이소정 교수와 Judson 대학이 주최하고 시카고 중앙일보 등의

특별후원으로 제7회 '미래를 여는 음악회'가 열렸다.

Judson대 이소정 교수(동대 84)와 김기봉 교수는 "봄맞이 가곡의 밤, 미래를 여는 음악회는 신명미가 부수되나 경제적 행진이 어려워 음악을 실천하지 못하는

한국의 음악전경 졸업자들을 위한 장학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08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올해는 특별히 중



일찍 사진은 김기봉(동대 87) 동문의 음악회 공연 모습. 오른쪽 사진은 이소정(동대 84) 교수

경 선악가인 바리톤 김기봉과 함께 하는 한국 가곡 이야기 공연이다. 봄, 사랑, 그리움, 조곡, 기쁨, 희망, 삶 등 다양한 주제별 가곡들을 연주했다.

이 교수는 또 "시카고 서번트 케스트와 악장금 바이올리니스트와 부수서 정유정 펠리스트 특별 출연하는 동향회와

연한 공연이 되었다"라고 덧붙였다. 특별 출연한 바이올리니스트 김상균 동문과 펠리스트 정유정씨는 두 사람 다 Chicago Civic Orchestra 악장금 첼로파트 부장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상균 동문은 모교 서울대와

비엔나 음대, 클리블랜드 콘서트홀에서 공부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장학기금을 마련해 주세 음악가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외에도 한국의 정서를 깊이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음악회로 마련시켜 기쁨을 전하게 되었다"면서 "한인사회의 이익을 알리던 중견 음악가들과 음악을 접비한 신진 음악가들이 함께 하는 무대로 더욱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모교 음대와 대학원생이 되는 데도 장학금 이소정 교수는 지난 1991년 시카고로 유학을 와서 1995년 미주대학(MJC)에서 피아노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저드슨 대학에서 15년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 교수는 "음향의 수익금 전체액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현재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인 유학생 음악도들 학비를 지원하는데 사용돼 왔다. 지난 여섯

동안 영문 소식지(동문 05)의 음악이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동향회 회원들이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시카고 동향회

<사건> 노영일(동대 62) 김동희(공대 66) 김교희(상대 69) 시카고 동향회장



남가주 동창회

정운찬 전 총장·총리와 오찬 행사

정운찬 전 총장 및 국무총리를 모시고 4월 19일 LA에 위치한 JJ Grand Hotel에서 오찬 행사를 가졌다.

남가주 동창회(회장 이시희, 부대 70)가 UCLA 한국학 연구소 강연회와 LA를 방문한 정운찬 전 총장·국무총리와 오찬 행사를 4월 19일 오전 11시에 LA의 JJ Grand Hotel에서 열었다.

남가주 동창회의 박해옥 수석 부회장, 방석훈 상임이사, 오종조 상임이사 등 2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남가주 동창회 김광진(사회과학대 75) 총무국장의 사회로 정운찬 전 총장·국무총리



↑ 남가주 동창회 김광진 총무국장

의 약력 소개, 박해옥 수석 부회장의 환영사, 방문 기념품 증정, 문준 및 내빈 소개, 그리고 질의응답의 순서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 남가주 동창회 오종조(사대 56, 일원) 상임이사와 방석훈(농대 55, 은근목) 상임이사가 지퍼포는 가운데 박해옥(간호대 60) 수석 부회장이 정운찬 전 총장·국무총리에게 방문 기념품을 전하고 있다.

개별별 질의응답 시간에 참석한 문준들은 주목받게 된만큼 질의, 답변사항, 조과 이익 공유제, 재총서, 정 권 총장의 근황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해 질문을 하

고 있었다. 문준은 정운찬 전 총장에게 방문 기념품을 전하고 있다.

정 권 총장은 "한국경제에서 중요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주위에 관한 문제는 어려운 문제"라고 대답하고 저성장장을 성장으로 이끌고 산업을 활기 있게 만들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 권 총장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협력, 중소기업 지원 방안, 중소기업에 정부 지원을 이야기 하면서 한국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견해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세상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현재 한국 원외에서 조전을 받아 많은 장면을 하고 있는 정 권 총장은 동문성장 연구소 소장직을 맡고 있는데 많은 동문들의 관심과 후원을 부탁했다.

정운찬 전 총장 및 국무총리는 UCLA 이시희안 아카데미 연구원 겸 총장으로 LA를 방문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변혁과 신뢰, 열정의 구축"을 주제로 강연회를 21일 개최하기로 했는데 이 행사 전 남가주 동창회 조영희(사대 55)는 도움을 받은 것이다.***



남가주 법대 동창회

팔로스 버디스 헤시공원에서 야유회

사우스 베이 지역 동문 초청

제회장 법대 50)가 지난 4월 19일 팔로스버디스 프레드 헤시 공원에서 사우스 베이 지역 동문 초

남가주 법대회동 동창회(회장

↑ 남가주 법대 동창회 야유회에 참석한 동문들이 기념촬영했다.

청 야유회를 가졌다.

이번 모임에는 이시희(법대 70) 남가주 총동창회장과 일원진 및 법대 동문 20여 명이 참석해 바비큐 파티와 프레임 산책 등을 진행했다.

이런 행사는 남가주 총동창회

가 새로 추진 중인 지역 클럽 활성화를 위해 실시된 행사로 법대의 사우스 베이 지역 동문들이 주목이 되어 피크닉 행사를 가진 것이다.

문의 (213)840-2064, e-mail 연 학자 sleepat@knu.com ***

<글> 김광진(사회과학대 75) 남가주 동창회 국무국장, 시진 오종순(미대 82) 남가주 미대 동창회 전 회장



샌디에고 동창회

동창회 위원회 발족, 3개 위원회 구성

3개 위원회 구성

샌디에고 동창회 위원회 발족 및 학원 대표 모임이 지난 1월 21일 카페 벨리다 있는 피자집에서 있었다. 87회 회장 사무실에서 있었다.

이날 총 17명의 동문이 참석하였으며 3개의 위원회(동문회 활성화 추진위원회, 지역봉사 추진위원회 및 여성동문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 임원(위원장·부위원장·간사)을 선출하였으므로 위원회 활동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역봉사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은숙) = 올해 주요 활동 계획은 6월 학생쉼터(Home Shelter 방근(God's extended hand))와 11월 경 Autism Therapist 프로그램에

volunteer로 참여하고 한인노인의 미팅을 추진해 노인들의 Needs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Juvenile diabetes fundraising에 참여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동문회 활성화 추진위원회(위원장 김동환 75) = 올해 주요 활동은 지난 1월 임원선거와 90-00학년 특별모임을 가진데 이어 2월 1일 학원대별 학원모임, 3월 1일 cross 학원모임을 가졌다.

▶1월 21일 샌디에고에서, 동문회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첫 정식 활동으로, 최중우 회장을 비롯해 김주성(83) 부회장, 김중우(94) 총무 등 임원진 90/00학번과의 정기 모임을 가졌다.

이날 12명의 90/00 학원 동문들

과 임원진 3명이 포항에 총 15명이 참석하였는데 UCSD내 Round Table Pizza에서 식사를 하면서 간략히 자기 소개 후 임원진이 동문회 활동을 소개하였다. 이후 90/00 학원 동문들이 동문회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동문회에 바라는 점에 대해 혁신위원회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어서 4월 주요 행사인 동산 행사를 실시했고 7월 중에는 정기 사파리 모임을 계획하고 있으며 자유의향장을 지원할 위원장 자택에서 개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각 학원대별 학원모임은 50학번, 60-70년대 학원, 80년대 학원, 90-00학번 등으로 나뉘어 지시행하고 있다.

▶여성동문 위원회(위원장 김향자 61) = 올해 주요 활동 계획은 우선 신체 여성 동문 리스콜을 입수하여 자체적으로 사임을 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여성 동문위원회 첫 모임을 가졌다.



1차인 1월 22일 UCSD에서 열린 미주동문 대표 순학구(문리대 65인씩 7번에) 동문 강연회에서 순 대표와 동문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지난 1월 21일 최중우 회장 사무실에서 열린 동창회 모임. 앞줄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최중우(87)회장, 김향자(61) 여성동문 위원회(여동문)위원장, 이은숙(57)지역봉사 추진위원회(지역동문)위원, 박우성(57)동문회 활성화 추진위원회(동활위)위원, 이은숙(62) 지부회 위원장, 김중우(94) 총무, 허성식(91) 지부회 위원, 심상철(81) 지부회 부위원장, 황장민(82) 지부회 위원, 이상학(96) 동활위 위원, 강동원(75) 동활위 위원장, 심상순(90) 여동문 간사, 조성환 지부회 위원, 황태환(00) 동활위 부위원장, 김우성(83) 부회장.

미주동문 순학구(문리대 65) 전 대표 UCSD강연회 참석

많은 동문 새로 가입

지난 1월 22일 UCSD(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에서 연 주(당월)제정식(만주연)은 순학구(문리대 65) 전 대표진(김경기도 지사)의 강연이었다. "Changing Dynamics in East Asia and Korean Politics"를 주제로 열린 이 강연회에 참석해 동창회에서도 동창회와 자원의 동문들이 참석했다.

이은숙(총대 56)-홍현아(문리대 84) 동문이 따두루 이주한 대신 많은 동문들이 새로 동창회에 가입했다. 새로 가입한 동문은 진윤호(약대 88)-김계희(안대 88)-김경숙(총대 50)-김경숙(사대 54)-우희(문리대 53)-손영자(약대 55) 임원진(문리대 65) 정재욱(총대 91)-박대현(총대 94)-김광수(총대 92)-한대현(총대 94) 동문 등이다. ***



지난 11대 미주 동창회 임원진

LA 용궁에서 모여 지난 임기 회고

지난 제11대 미주 동창회(회장 김은숙·총대 56)를 맡았던 임원진이 지난 2월 20일 LA의 라스도왕 용궁에서 모임을 가졌다.

제11대 임원진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2년의 임기 동안 미주 동창회를 운영하는 과정 중 있었던 사업과 행사 전반에 관한 일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제11대의 성취요(총대 68) 사무

총장은 "미주 동창회를 위해 그동안 봉사해 온 동문들이 만나 서로 인사를 나누고, 미주 동창회를 위한 임원진들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제11대 임원진은 앞으로 분기별로 한 차례씩 이같은 모임을 가지기로 했다. 이에 대해 동문들은 "비록 일기가 맑았지만 또 맑고 즐거운 여행을 떠날까 보고 자기 동창회와 의견을 나누

1 제11대 미주 동창회 임원진과 임무 부임일이 지름을 했다. 왼쪽부터 노명호 공대 동창회 전 회장 부인, 백옥사 총무국장직 미주 동창회 조직국장), 이경희 사립국장, 강은희 재무국장, 김병연 17학번위원장, 김간진 전위원장, 남석주 고문, 김은총 회장, 성주영 사무총장, 김은총 회장 부인, 박성훈 고문 부인, 김간진 전 집행위원 부인.

는 것은 앞으로의 미주 동창회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참사건 = 백옥사(총대 71) 미주 동창회 조직국장 >



백가주 동창회 흥겹심(문리대 61) 이사장

한민성 명예교수와 제자 모임 마련

백가주 동창회의 흥겹심(문리대 61) 이사장이 동문들과 함께 학부 시절 은사 한민성 교수님을 지난 2월 28일 이날 이 관련 연 사인과 기사를 다룬가 같이 보내와 이를 게재한다. "백가주 어니 시인 김은 총은 장차 2014년 2월 28일 '일만야가 삼반리' 라는 소식이 있다. 이말타리 작가 Edmundo De Amicis(1846-1908)가 쓴 것으로

1 원복부터 이기동 돌로브(21회, San Jose), 관탄심 교수(18회, San Jose, 시모넬 이성영 여사는 원리대 사회학과 2), 오윤환 총동맹(16회, Tucson Arizona), 이종호 총동맹(15회, 백가주), 김은총 총동맹(19회, Minneapolis, Minnesota), 정조흥(18회 San Jose) 동문.

신체여가 스승인 공대 황창과 교수님 영입하신 한민성박사님을 지난 2월 28일 California San Jose에서 여러 동문들과 같이 만나서였다. 스승을 필기위 한다면 앞으로 이같은 조도 인 및 제자들과 부부동문으로

함께 식사와 콜로라도 지면서 몇 학생 시절로 돌아가 볼 모습이 하도 보기 좋아 함께 하고자 한 것이다. 학생 시절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교수님의 본분이나 졸업 후에도 제자들과 교감하며 인생의 한 뜻에 함께 하는 분은아니 말로 권정 영한한 스승님입니다. 한민성 교수님의 email은 Mar-seup Han@hawaiihosting.net. 이다. *** <흥겹심 이사장 >

<여흥기> 인도차이나

내가 본 불교의 왕국들(1)

김명자(운대대 62)NE

지난 1월 영하 13도의 오후하늘 추위를 벗어나 20시간 후에는 날은 습하고 90도를 오후네리는 열대지방 사이곤 시(히치 Hi Chi)에 내렸다.

▶20여 시간의 비행 - 나야 맞았는지 20여 시간의 비행은 지루했고 또 등은 뜨겁게 아팠다. 비행은 짧았지만, 더운 땅을 밟으니 은근한 풀땀이나 여기저기 푸시던 풀땀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3시간으로 켈렌베 Pre-Agropen 비자가 후식 가져와 아내와 후식 열려를 했지만, 인양보는 신성을 찾지 시이곤 비행장에서 입국 도장을 받았으므로 400여 달러의 돈을 절약할 수가 있었다. 여권을 따로 챙겨왔고 보내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하고 좋았다.

하다 못해 D.C.의 베트남 대사관이나 뉴욕의 영사관과도 지대도 미국에서 우편의 여권에도 도장을 받아가지 하라고 우기는 것이었다. 자칭은 크나 큰 모자를 쓴 것인데도 인양보 같은 이름을 알리고 High - Tech의 락을 들고서서 출국했다. 두 장의 사진과 10여 분의 기내편의 호객까지의 택시 값도 25달러라고 하더니 아예 불렀지만, 여흥 사서 더러 보내준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결국 10달러의 Bacon 토너를 도착할 수 있었다. 호텔 앞 길거리에는 비행 후의 숨막힌 땀 속에서는 위해서 화려하고 이름난 장식되어 있었다.

1월 21일 토요일 새벽 1시에 잠이 깨어났으니 20시간 후에는 개를 품고 있었으나 여러 가지의 아픈 시사를 갖게 될 수 있었다. 로비에서 앞으로 2주 이상을 안내할 영어를 제비만 하는 Phony Nguyen인 안내원을 만났다. 자칭 안내원은 모든 Truong이 참은이었다.

▶베트남의 동서 - 10명의 우리 일행은 두 모인 집 갔었다. Cu Chi Tunnel도 갔는데, 베트남어인양나도 교토의 고개를 잘 파놓았지만, 사이곤의 미국 부대지휘관 4명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물 있어는 사이곤이 일 상). 여러 곳에 술가들은 술을 입가지 있어서 만일 어떤 베트남인들이 여기 저기서 뛰쳐 나와서 미군들을 쫓아내고 제비와 필연한 통찰을 통해 거기에도 들을 수 있는 곳과 기밀을 훔칠수 가진 자들은 알다시피 알다시피 금로 훔치기 부수기 때문이다. 그들은 저기가는 부너가 풀을 잡아다가 꽃 피는 데에 4-5세씩 꽃을 노동은 시켰으며, 많은 무고한 시민들은 병참과 베트남으로 떠났고 있었다.

남편과 나는 시범으로 남거 높은 곳으로 들어가 보았는데 폭은 겨우 눈 높이는 움직임만과 풀과 꽃과, 줄의 놓이는 미터가 될까 말까 부근에 있어서 고개도 세우기 무렵엔 열 발자국쯤 걸쳤지만 이 이상은 걸음해 낼 수가 없었다.

남에는 남쪽 군인들, 양민들을 병참하고 방어진 베트남이 되어 서 흥일을 해왔으니, 어느 것이 그들의 정체인지 알지 못했다. 하루에 죽 한 사발씩 먹는 악조건 하에서 절망에 허덕이는 것은 베트남 국민들의 정신과 기나이는 노력으로 1970년에는 통일을 이루었으며, 지금 냉전의 영향을 덜 보아도 미국은 그들을 살려고 이길 수가 없었다.

▶호미들은 어떤 손잡이였나 - 그들은 1달리당 2천원(Dong)의 환율이니 특별한 상업이 없는 농업 유일의 국가에서 1년에 외국 돈이 나가 있는 가족들이 보이는 돈이 10억 달러가 넘어야 나라에 가장 큰 산업의 하나가 되어 버렸다.

아직도 남쪽 사람들은 성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고, 공산당을 비판할 수가 없는 일상이며 월도-산악-전기-망 등을 장악하고 있는 공민적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직책과 권한을 누리면서 잘 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아이들은 신발이 없고 교과서, 공책과 연필은 절반만 있고 컴퓨터도 없는 일인 18일이 넘는 시골은 완전한 자본주의에 바쳐져 있었으니, 결국은 자본주의가 이 곳이나 다름이 없었다. 길

“특별한 산업이 없는 농업 유일의 국가에서 1년에 외국에 나가 있는 가족들이 보내오는 돈이 10억 달러가 넘어 이 나라에 가장 큰 산업의 하나가 되어버렸다”

거리에는 세상의 오토바이들이 다 모여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다. 전주하고 나누는 다 장사하는 듯 했다. 사이곤은 이름처럼 호치민시도 바뀐지만, 20여 년은 안달라아는 것이 이 땅에서 모르고 아무 상상이나 자유로이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남쪽 태평양이 살던 곳일 공로(Bonification Palace)인양으로 갔는데 바꾸었는데 그 공로와 크급스민 가부들은 순례해야 나쁘게도 잘 정은 있었다. 전쟁 발발전부터 들었던 나무 나뭇고 피라한 데다 가지가 견제하고의 흑색 시진들이어서 변조 후미가 있었다.

사이곤에서 가장 크다는 Ben Thanh 시장은 사흘도 안되어서 정복을 받고 있던 나라가 되는데 북쪽과 남 시집과도 있었다고 했다. 통일 후 10년 안에는 북쪽 공산당군이 남으로 내려와 통치를 질미며 거기 두 달 동안 부패들은 다 흡수할 것으로. 그의 의문 사자들은 7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크롬이 되었다. ▶3코코아열도 같이 14세에 도착을 하는 가장 저예산에서 외국과 통행이 죽기가 다사사하기는 5-6년 뒤부터 코코아 열대 기후에서 두 달쯤 모기로 망망진 칠기다(이름 불모지) 망망진 치라는 두 팔을 벌이고



1. 논 한가운데 피겨 보이는 것이 비석이다. 베트남 남부들은 죽을 때 자기 눈에 묻히기를 위해 자식들은 거기에 묘지를 만들어주고 비석도 세우는데 그 때문에 자식들은 눈을 살게 할지도 못한단 것이다.

그들을 관정한다 고 했다. 그들 가족은 공예품을 만들어내는 진한 붉은 색깔과 얼룩덜룩한 색깔이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며, 설이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내고, 월이 펴지고 얼룩덜룩한 옷으로 쓰고 있다. 평균 손우에는 차연적으로 자라는 바나나도 얼마든지 있었고, 콩이 조금씩만 있는 물 지대를는 10미터 정도 크기의 약초도 팔고 수 있었다.

외국인들을 위해 호텔이나 남거 수단이라 비싸게 알아 권할 것이 아니라에서 들먹이는 노래를 들을 수 있다. 두 사람이 작은 것은 그것도 베트남 Palm나무와 양말로 무지치 없는 좋은 장식이 있을 때에 코코아와 팡송 같은 Sermitus 판매처도 있었다. 일인 양분에서 줄까지 다나왔다. 이걸이 풍채 줄자 지역을 들어는 식에서 줄자 지역을 들어

는 것인데 가끔씩은 죽을 때 자기 눈에 묻히기를 위해 자식들은 거기에 묘지를 만들어주고 비석도 세우는데 그 때문에 자식들은 눈을 살게 할지도 못한단 것이다.

보가 팔려 있던 집에 들어갈 때의 기분이었던 이만 저만 유래한 것이 아닐까?

▶기타의 수도 = Bai An 옛 수도 1747년이라는 중국에서 온 상인들이 물과 교역하는 하고 있었다. Phong이 관내라는 데도 Bale서남으로 가서 갈팡팡을 하는 만두 필집에 상수, 감지, 꼬치에 끼워 구운 채지고기물까지 먹는 것이 재미있다.

▶기타의 수도 = Bai An 옛 수도 1747년이라는 중국에서 온 상인들이 물과 교역하는 하고 있었다. Phong이 관내라는 데도 Bale서남으로 가서 갈팡팡을 하는 만두 필집에 상수, 감지, 꼬치에 끼워 구운 채지고기물까지 먹는 것이 재미있다.

▶기타의 수도 = Bai An 옛 수도 1747년이라는 중국에서 온 상인들이 물과 교역하는 하고 있었다. Phong이 관내라는 데도 Bale서남으로 가서 갈팡팡을 하는 만두 필집에 상수, 감지, 꼬치에 끼워 구운 채지고기물까지 먹는 것이 재미있다.

▶기타의 수도 = Bai An 옛 수도 1747년이라는 중국에서 온 상인들이 물과 교역하는 하고 있었다. Phong이 관내라는 데도 Bale서남으로 가서 갈팡팡을 하는 만두 필집에 상수, 감지, 꼬치에 끼워 구운 채지고기물까지 먹는 것이 재미있다.

▶기타의 수도 = Bai An 옛 수도 1747년이라는 중국에서 온 상인들이 물과 교역하는 하고 있었다. Phong이 관내라는 데도 Bale서남으로 가서 갈팡팡을 하는 만두 필집에 상수, 감지, 꼬치에 끼워 구운 채지고기물까지 먹는 것이 재미있다.

▶기타의 수도 = Bai An 옛 수도 1747년이라는 중국에서 온 상인들이 물과 교역하는 하고 있었다. Phong이 관내라는 데도 Bale서남으로 가서 갈팡팡을 하는 만두 필집에 상수, 감지, 꼬치에 끼워 구운 채지고기물까지 먹는 것이 재미있다.

▶기타의 수도 = Bai An 옛 수도 1747년이라는 중국에서 온 상인들이 물과 교역하는 하고 있었다. Phong이 관내라는 데도 Bale서남으로 가서 갈팡팡을 하는 만두 필집에 상수, 감지, 꼬치에 끼워 구운 채지고기물까지 먹는 것이 재미있다.

▶기타의 수도 = Bai An 옛 수도 1747년이라는 중국에서 온 상인들이 물과 교역하는 하고 있었다. Phong이 관내라는 데도 Bale서남으로 가서 갈팡팡을 하는 만두 필집에 상수, 감지, 꼬치에 끼워 구운 채지고기물까지 먹는 것이 재미있다.

▶기타의 수도 = Bai An 옛 수도 1747년이라는 중국에서 온 상인들이 물과 교역하는 하고 있었다. Phong이 관내라는 데도 Bale서남으로 가서 갈팡팡을 하는 만두 필집에 상수, 감지, 꼬치에 끼워 구운 채지고기물까지 먹는 것이 재미있다.

▶기타의 수도 = Bai An 옛 수도 1747년이라는 중국에서 온 상인들이 물과 교역하는 하고 있었다. Phong이 관내라는 데도 Bale서남으로 가서 갈팡팡을 하는 만두 필집에 상수, 감지, 꼬치에 끼워 구운 채지고기물까지 먹는 것이 재미있다.

▶기타의 수도 = Bai An 옛 수도 1747년이라는 중국에서 온 상인들이 물과 교역하는 하고 있었다. Phong이 관내라는 데도 Bale서남으로 가서 갈팡팡을 하는 만두 필집에 상수, 감지, 꼬치에 끼워 구운 채지고기물까지 먹는 것이 재미있다.

▶기타의 수도 = Bai An 옛 수도 1747년이라는 중국에서 온 상인들이 물과 교역하는 하고 있었다. Phong이 관내라는 데도 Bale서남으로 가서 갈팡팡을 하는 만두 필집에 상수, 감지, 꼬치에 끼워 구운 채지고기물까지 먹는 것이 재미있다.

▶기타의 수도 = Bai An 옛 수도 1747년이라는 중국에서 온 상인들이 물과 교역하는 하고 있었다. Phong이 관내라는 데도 Bale서남으로 가서 갈팡팡을 하는 만두 필집에 상수, 감지, 꼬치에 끼워 구운 채지고기물까지 먹는 것이 재미있다.

▶기타의 수도 = Bai An 옛 수도 1747년이라는 중국에서 온 상인들이 물과 교역하는 하고 있었다. Phong이 관내라는 데도 Bale서남으로 가서 갈팡팡을 하는 만두 필집에 상수, 감지, 꼬치에 끼워 구운 채지고기물까지 먹는 것이 재미있다.

▶기타의 수도 = Bai An 옛 수도 1747년이라는 중국에서 온 상인들이 물과 교역하는 하고 있었다. Phong이 관내라는 데도 Bale서남으로 가서 갈팡팡을 하는 만두 필집에 상수, 감지, 꼬치에 끼워 구운 채지고기물까지 먹는 것이 재미있다.

▶기타의 수도 = Bai An 옛 수도 1747년이라는 중국에서 온 상인들이 물과 교역하는 하고 있었다. Phong이 관내라는 데도 Bale서남으로 가서 갈팡팡을 하는 만두 필집에 상수, 감지, 꼬치에 끼워 구운 채지고기물까지 먹는 것이 재미있다.

Meong Delta구의 크루즈를 타 갔는데, 전담 차량이 왔지만 배를 실실히 타게 되었다. 내 다 리를 통한 농구질과 많은 Coom나무들과 서서 풍광이 있었었다. 크로아아아아로 마는 면을 그들은 만들어 주고 배는 주스, 캔디를 만드는 데 쓰이게 나오는데 맵다. 주겨, 주겨 등

▶기타의 수도 = Bai An 옛 수도 1747년이라는 중국에서 온 상인들이 물과 교역하는 하고 있었다. Phong이 관내라는 데도 Bale서남으로 가서 갈팡팡을 하는 만두 필집에 상수, 감지, 꼬치에 끼워 구운 채지고기물까지 먹는 것이 재미있다.

동창회비·관악후원금·광고 및 업소특비·기타 후원 동문(2013.7.1 ~ 2014.5.5)

Table with 2 columns: Donor Name and Amount. Includes sections for Alabama, Alaska, Arizona, California, and Hawaii.

Table with 2 columns: Donor Name and Amount. Continuation of donor list from the previous table.

Table with 2 columns: Donor Name and Amount. Continuation of donor list from the previous table.

Table with 2 columns: Donor Name and Amount. Continuation of donor list from the previous table.

Table with 2 columns: Donor Name and Amount. Continuation of donor list from the previous table.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후원금 (회계연도 2013년 7월 ~ 2014년 6월)

Form for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donation. Includes fields for name, address, phone, and donation amount. Includes a table for recurring payments and a section for card payments.

Additional information and contact details for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cluding a note about the document being a non-commercial PDF.

241호 2014년 5월

서울대 민주 동양지보

2013년 계획

Table with 2 columns: Organization Name and Contact Information (Address, Phone, Email). Includes groups like ▶A & J, ▶Arista, ▶California, ▶New England, ▶NY & NJ, ▶Chicago, ▶Florida, ▶Georgia.

Table with 2 columns: Organization Name and Contact Information (Address, Phone, Email). Includes groups like ▶Ba. States, ▶California, ▶Chicago, ▶Illinois, ▶Indiana, ▶Iowa, ▶Kansas, ▶Kentucky, ▶Michigan, ▶Minnesota, ▶Missouri, ▶Nebraska, ▶New York, ▶North Carolina, ▶Ohio, ▶Oregon, ▶Pennsylvania, ▶Texas, ▶Virginia, ▶Washington, ▶West Virginia, ▶Wisconsin, ▶Wyoming.

2013.7-2014.6

관악후원금

Table with 2 columns: Organization Name and Amount. Lists various groups and their contribution amounts, such as ▶Arista (148,120), ▶California (487,120), ▶New England (456,120), etc.

2013.7-12

관악 후원

Table with 2 columns: Organization Name and Amount. Lists various groups and their contribution amounts, such as ▶Ba. States (477,125), ▶California (411,110), ▶Chicago (400,120), etc.

민주 동창회 대도원 후원 후원

Table with 2 columns: Organization Name and Amount. Lists groups like ▶서귀포원 (61,200), ▶동문회 (68,500), ▶김정희 (상대) (501), etc.

Brain Network Symposium 후원

Table with 2 columns: Organization Name and Amount. Lists groups like ▶이준철 (상대) (1,000), ▶이준철 (상대) (1,000), ▶이준철 (상대) (1,000), etc.

지역동창회 분담금 기부



Table with 2 columns: Organization Name and Amount. Lists groups like ▶Ba. State (200,400), ▶California (100,200), ▶Tennessee (100,200), etc.

평의원회

Table with 2 columns: Organization Name and Amount. Lists groups like ▶Chicago (200,240), ▶Ba. IC (1000,1000), ▶New England (500,500), etc.

미주 동문 업소록

광고 문의는 전화
(703) 462-9083

CA	남가주	운송/유통/통관/인재개발	서비스/개업/재정/보험	우주개발/기술
	공인회계사 강동순 회계사 강동순 (상대 59) (310) 539-9315 19401 Vermont Ave., Suite C-201 Torrance, CA 90502 kangdong@att.net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물관도매 이병준 (상대 55) (562) 692-06009 9615 S. Norwalk Blvd., #B, Santa Fe Springs CA 90670	A.P.W. 자동차 부품 서동훈 (상대 60) (310) 753-8636 1073 E. Arisla Blvd. Carson, CA 90746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상대 64) 714-562-2240 10874 Hope St. PO Box 104 Opores CA 90303 j@tayscoeng.com www.tayscoeng.com
	 김재영 공인회계사 김재영 (상대 62) (213) 365-1965 2900 Wilshire Blvd. #300, L.A. CA 90010	엔지니어링 컨설팅 Lee & Ro, Inc. 노영호 (상대 61) (626) 912-3391 116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비영리법인 애양 국제에나지 International Society of Off shore & Polar Engineers 장진수 (상대 56) (650) 254-1871, 455 N. Hillman Rd., Ste. 300 Mt. View CA 94043	NY-NJ 뉴욕/뉴저지 공인회계사 Changsoo Kim, CPA, P.C. 김창수 (상대 64) (212) 700-1700 (917) 664-0900 38 W 32St, Suite #5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신대식 공인회계사 신대식 (상대 60) (310) 339-6557 555 W. Redondo Beach Bl., #200, Gardena CA 90246	건축/컨설팅 Mackone Development Inc. 양민태 (상대 56) (213) 252-9506 224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동물병원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900-627-005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리태일러 Kenneth K. Lee CPA 이경림 (상대 64) (212) 769-9144 1430 Broadway Suite 906 New York NY 10018
	김재영 (상대 62) (213) 365-1965 2900 Wilshire Blvd. #300, L.A. CA 90010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태 (농대 74)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 Santa Ana CA 92705	변호사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상대 81) (213) 325-971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New York Golf Center 이진규 (농대 60) (212) 564-2256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13
	김 & Kang CPA's (김경우 강정욱 공인회계사) 김경우 (상대 69) (213) 616-1390 3485 Wilshire Blvd. #150 Los Angeles, CA 90010	의료/약국 Gilbert Pharmacy I 최무석 (약대 66) (714) 639-8239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644	부동산/교외 Teaspirit Investment & Dev. 이종도 (간호대 69) 714-395-0624 949-251-0404 30 Corporate Park, Ste.207, Irvine CA 92606	Young Tai Choi E.A. 최영태 (문리 67) (212) 695-0306 13 E 30th St. 2F New York NY 10016
	AN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 (상대 73)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정수만 알레나 & 열악내과 정수만 (의대 66) (714) 539-6414 1255 Garden Grove Blvd. #338 Garden Grove CA 92643	Evergreen Realty 이재현 (법대 60) 201-944-5363 242 Broad Ave. Passaic NJ 07050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718) 955-7000 147-38 192nd St. Jamaica, NY 11413
	이광현 공인회계사 이광현 (인문대 76) (213) 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식품/음식업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562) 3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라 캐나다 한인교회 학교 원 (상대 65) 819-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건축/부동산 Evergreen Realty 이재현 (법대 60) 201-944-5363 242 Broad Ave. Passaic NJ 07050
	강호석 회계사무소 강호석 (상대 81) 714-530-3630 12923 rockhurst St. #300 Garden Grove CA 92640 213-380-5900 3650 Wilshire Blvd. #1006 LA CA 90010	지리경영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408-732-0833 877 W Fremont Ave. #H3 Sunnyvale CA 94087	리태일러/보여 세계보석 김광철 (상대 59) (213) 627-0547 650 S. Hill St. #E 8 LA. CA 90014	김주현 건축사무소 김주현 (상대 83) 347-213-3516 150 S. Middle Neck Rd. #D Great Neck NY 11021
	STANLEY Cha, CPA 자기인 (상대 85) 213-739-5700, 714-525-1821 stan@stanleycpa.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632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213) 365-1005 3240 Wilshire Blvd. # 510 LA. CA 90010 dds@haiphyno.com	복가주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 Polar Engineers 장진수 (상대 56) 650-254-1871 405 N. Hillman Rd. # 300 Mt. View CA 94043	엔지니어링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 Polar Engineers 장진수 (상대 56) 650-254-1871 405 N. Hillman Rd. # 300 Mt. View CA 94043
	재정/보험 Paramount Planning Group 조영현 (간호대 72) 213-467-0263 3435 Wilshire Blvd. Ste.2500 LA CA 90010 fn.cholhae@ppgplanning.com	재정/컨설턴트  김기형 (상대 75)	클리닉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909-882-3800 (B) 714-323-8612 (C) 2095 N. Waterran Ave. San Bernardino CA 92404	조지아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 (상대 76) 404-579-8282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PA 필라델피아

동물병원/견육 설계

Cottman Animal Hospital
주거용 (수의대 68)
215-745-930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Timothy Haas & Assoc.
건축 (생물과대 77)
484-342-0300
550 Township Line Rd., Ste. 130 Blue Bell PA 19422

이즈미 알선업
건축 (공대 61)
(267) 408-7342
1222 Birch Rd., North Wales PA 19454

TX 텍사스

산업/건축

C&C Industries Inc.
건축 (주식대 60)
713-666-1644
10350 Clay Rd., Ste. 250 Houston TX 77041
kolcandavis.com www.candavis.com

MD,VA 워싱턴DC

지과

이준영 지과 (치과 74)
(301) 229-2828 (301)926-9892
6201 Greenleaf Rd. S.W., Co. Virginia Park MD 20746
8531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20877

부동산

BPS Appraisal Company
부동산 (주식대 69)
(703) 720-1707
7518 Evans Ford Rd., Centilly VA 20124

모터/기계/엔진

Drivetech, Inc
엔지니어링 (공대 69)
703-327-6969
Carrington Dr.ve, Drantilly, VA 20152

개발/보안/컨설팅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북미 (경영대 84)
201-270-6969
414 Hungerford Dr., #203 Rockville MD 20850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생명 (자연대 82)
703-663-8400 (703) 765-8467(C)
1952 Gal lows rd. Ste 214 Vienna, VA 22182

NE 네바다

Best Care Dental
김영홍 (치대 66)
702-364-2829 702-486-7115
52055 Durango Dr., #103 Las Vegas W89113

OR 오리건

Filonix Inc.
박희진 (농대 78)
616-419-5333
P.O. 7416 Beaverton OR 97007

동문 신간

■ 요한계시록 이야기

- 빛누리 지음

제명대 율우명 (경영90 - 74) 명예교수가 요한계시록을 이야기체로 쉽게 풀어낸 책이다.

요한계시록의 저주적, 단파별해시 이전에 전제적 흐름을 먼저 살펴봄으로써 그 난해성으로 인해 독자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요한계시록을 독자적 가까이서 초대한다.

독자들은 저자를 따라 이야기의 요한계시록을 본다 보면 멀리 있던 요한계시록의 세계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다.

독자들은 요한계시록의 세계를 만나게 되면 하늘이 닫혀져 있는 우리 시대를 살면서 감당해 주는 성경적 영성의 숲속에 들어와 있음을 느끼게 된다.
<대한기독교서사의 권> - 값 11,000 원

■ 생각의 경계

- 김승효 지음

한국과학기술원(KAIST) 수리과학과 김승효(수학교과 73 - 80)교수가 새로운 생각이 지어지고 있는 시작점을 '경계'로 보고, 생각이 지어지고 도약하는 과정을 열두 단계로 체계화해 설명했다.

민간, 대학, 지식창업, 지식인민, 생각이 차, 질문, 지식융합, 지식공공, 지식의 진화, 창의성, 생각의 흐름 등 뇌의 기능을 실제 가르치는 카이스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와 통계 자료를 들어 설명한다. 이를 통해 사람이 깨닫는 지식이 매우 한정적이며, 때로는 왜곡된 상태에 있을 수 있다고 그 결과 사람의 생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한림의책 권> - 값 15,000 원

■ 대한민국' 국호의 탄생

- 李先敏 지음

조선일보 李先敏(국사80 - 84 본보 논설위원)이한독부차장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제안한

한민'이라는 國號를 더욱 넓은 안목에서 이해하고 그 의미와 외재 기고자 절필한 책.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한국 현대사 교양총서' 중 한 권으로 마련된 이 책은 의외로 연구가 드문 우리나라 국호의 유래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저자는 기존의 연구를 참고하고 국호 관련 자료를 집대성한 사료와 논리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정제하여 절필했다. 그리고 역사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되짚고 내리오는 시선 방식으로 우리 역사 속에서 국호가 지니는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했다.
<나눔 권> - 값 12,000 원

■ 한국의 여가자

- 金恩珠 지음

과거 여가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나? 당대에 가장 절찬을 얻은 여성이었다. 기차라는 어떻게 수면은는가? 志士의 자색도 계몽활동은 하거나 문필가로 활약했다. 각 시대 요구한 여가자의 역할은 무엇이었다? 전체 여성의 각성을

달서 전장에서 군복을 입고 죽었던 '붉은 여가자' 장덕조까지 여가자 영역의 범위가 소개된다.
<여가세계이론서적 권> - 값19,800 원/유역사 편

역사실명사명사환란(1)②
- 韓明基 지음

명치대 사학자 韓明基(주사183)교수가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사실신문'에 2년 동안 연필했던 '사실'에서 배운 단편소설만 다시 읽기 편'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한 책.

명치대 사학자 韓明基(주사183)교수가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사실신문'에 2년 동안 연필했던 '사실'에서 배운 단편소설만 다시 읽기 편'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한 책.

명치대 사학자 韓明基(주사183)교수가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사실신문'에 2년 동안 연필했던 '사실'에서 배운 단편소설만 다시 읽기 편'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한 책.

명치대 사학자 韓明基(주사183)교수가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사실신문'에 2년 동안 연필했던 '사실'에서 배운 단편소설만 다시 읽기 편'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한 책.

명치대 사학자 韓明基(주사183)교수가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사실신문'에 2년 동안 연필했던 '사실'에서 배운 단편소설만 다시 읽기 편'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한 책.

명치대 사학자 韓明基(주사183)교수가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사실신문'에 2년 동안 연필했던 '사실'에서 배운 단편소설만 다시 읽기 편'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한 책.

명치대 사학자 韓明基(주사183)교수가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사실신문'에 2년 동안 연필했던 '사실'에서 배운 단편소설만 다시 읽기 편'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한 책.



동문 작품 전시회
김병종 작
연당출판, 종합자료 46 x 28 cm, 2013년
<작가 약력>
1981년 모교 회화과 졸업
1984년, 시가과, 무학생 천 등 2회
1987년 피아노, 시가과 등 국제 아트 페어, 인디애나 트리엔날레 등 참여
1989년 모교 회화과 졸업
1991년, 시가과, 무학생 천 등 2회
1994년 피아노, 시가과 등 국제 아트 페어, 인디애나 트리엔날레 등 참여
1991년 미술기초, 심미미술, 한국미술학사, 한국문화예술상 수상
1992년 모교 미술대학장, 조형연구소장 등 역임, 모교 동량학과 교수

원고 청탁

▶**시·수필·칼럼·이해가·특약군 기타** : 동향인보에는 모든 동문들의 글을 게재하고 있으나, 주제와 내용은 제한이 없습니다. 주제와 내용은 제한이 없습니다. 단 지나치게 정치사화적, 이념적으로 편향된 내용이나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은 다소 소극하게 편집됩니다. 또한 중요하지 않거나 너무 지루한 내용 역시 미천해집니다. 방향은 꼭 지켜야 하신 경우 A-(Letter) 쪽지 3-4매 이내로 열람사진과 원작자를 첨부해주시십시오.

▶**My Journey to America** : 동문들의 지난 과거를 그리는데 연재 'My Journey to America' 시리즈에서 최근 최유연(공대 57) 동문님의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동문들께서는 이 시리즈에 글을 써서 앞으로 자신의 여정을 주제로 이용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편집주간»**

‘편집후기’

○**«과연 신은 존재할까요?»** : 너무나도 여러 구나 읽었습니다. 아카데미 어워드 수상도 되어 많은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고국 남해의 차가운 바닷속에서 숨을 거두어가야만 했을거요. 그것도 수백명씩이나 한꺼번에 말입니다. 아직 꽃도 피우지 못한 어린 생명들이 ‘엄마, 사랑해’ 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죽어갔습니다. 5월호 편집을 하던 중 1월 16일부터 터지나 온 이 비극적 뉴스에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 번 신(God)을 원망하게 됐습니다. 과연 종교에서 그렇게 우월이 받드는 편지였을지는 모르나 하나님 또는 신의 존재 여부, 제발과 관련한 것이 있거나 한 것만도 말입니다. ○**«컴퓨터 교체»** : 동향회보 편집용 컴퓨터가 5년만에 새로 교체. 4월호부터 대폭 개선된 상태에 편지들입니다. Pentium Dual CPU E 2300 RAM 2.20 GB에서 Intel Core i3-3240 CPU 4.30, 4.00 GB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또한 프로세서도 Quark Express로 8.02에서 10.0 버전으로 upgrade

했습니다. 기타 부수어 모든 프로그램도 역시 다시 설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컴퓨터는 Dell 사 제품으로 과거 제10대 시카고 송송원 회장 취임 당시 최선 제품으로 장만된 것임이나 5년이 지나니 좋은 성능이 많이 뒤처져 워엄에 따라 하드웨어 upgrade된 Lenovo 로 교체하게 된 것입니다. 컴퓨터 교체에 장정태(사대 75) 편집위원장이 크게 수고해주셨습니다. 장 위원장은 교내 라디오에서 컴퓨터 전문가 수준의 솜씨를 보여주시며 뛰어난 했습니다. ▶**«편집주간»**

미주 동향회 조직과 임원단

각 지역 동향회 회장단

서울대 미주 동향회 제12대 회장단 및 임원 역대 회장

박완수(문)·김수성(의)·이병문(산)·오민석(법)·이용락(공)·오홍준(의)·이영택(공)·이건규(농)·송순영(의)

제12대 회장 : 오인환(문)

차기 회장 : 손재욱(가정) 관악후원회 부회장 : 김연순(가정) Brain Network담당 부회장 : 이재진(문) MI 후원사회 담당 부회장 : 공준욱(간) 관악세대 담당 부회장 : 이현영(사회) 사회봉사 담당 부회장 : 권경신(사대) 상임고문 : 박완수(문)·이영록(공)

집행부 임원

사무총장 : 정명희(공) 총무국장 : 권경민(간) 조직국장 : 박옥희(농) 재무국장 : 유홍영(자연) 광고국장 : 황문선(농) 사업국장 : 김정식(농) 상임국장 : 이우진(농) 기금모금위원장 : 권홍수(의) IT개발위원장 : 손재욱(가정)

회보 임원

발행 : 오인환(문) 주필 : 박 순(법) 편집위원 : 장경태(사) 편집주간 : 이기문 편집위원 : 권경의(공)·서윤석(의)·이우진(상)·이재진(문) 정명희(공)·김정식(산)·권혁숙(의)·황문선(농) 이나영(간)·각 지역 동향회 편집기사

논설위원 : 이형열(법)

논설위원 : 강영환(의)·고영해(간)·조희준(의)·이재진(문) 최명환(공)·장홍택(산)·윤상대(수)·김창수(의) 차인영(의)·이석구(문)·김복현(간)·유재홍(문) 장정택(의)·허용홍(사)·민영준(법)·이병영(정)

회칙위원회

위원장 - 한재민(의) 위 원 = 서경민(공)·이민영(법)·윤상대(수) 김자영(사)·신동남(농)·황문선(의)

감 사 : 박명필(농)·주기욱(수의)

*사진·취재·기사작성·편집·디자인 = 이기문 편집주간 snuusaajk@gmail.com. snuusaat2@gmail.com *인쇄 = Silver Communications 102-A Executive Dr., Sterling, VA 20186

남가주	회장	이서희(법대 70)	213-840-2064	steelatip@gmail.com	회계년도 Feb-Feb
	차기회장	박재욱(간호대 69)	818-952-2871		
북가주	회장	이상우(문리 72)	408-891-2200	president@fnua-nc.org	Jan-Dec
	부회장	박희래(간호 73)	831-818-2959	acuhereie@fhoatmail.com	
뉴욕	회장	박상원(음대 69)	917-324-2989	sangparkny@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뉴잉글랜드	회장	장수인(음대 76)	978-821-9434	sooihne@comcast.net	
	차기회장	이경애(인문 73)	978-479-0046	president1@fmgmail.com	
달라스	회장	최연(공대 70)	817-919-3057	yuanchoy@cbglobal.net	
	차기회장	오기영(공대 73)	214-457-7974	kiyoungoo@gmail.com	
텍사스	회장	김영일(법대 64)	719-321-9989	youngisaackie@farmail.net	
	차기회장				
미네소타	회장	변우진(인문대 81)	952-922-0040	woodlaw@yahoo.com	
	차기회장	조혜석(공대 84)	952-807-6559		
샌디에고	회장	최홍순(자연대 87)	858-259-5273	heungsoo_choi@knobbe.com	
	부회장	김우진(공대 83)	958-219-5868	brankim00@yahoo.com	
시카고	회장	김호범(상대 69)	847-657-8919	hkim@roccogang.com	Jan-Dec
	부회장	김영환(농대 73)	kyeyoung@gmail.com		
여러주	회장	오윤환(문리대 56)	520-271-2601	younhwan-oh@yahoo.com	
	차기회장				
앨라스카	회장	윤재중(농대 55)	907-223-0887	jaeyjeon@hotmail.com	
	차기회장	박석현(농대 58)	907-561-0818		
오레곤	회장	이석진(공대 89)	503-317-5625	seokjin.lee@gmail.com	
	차기회장				
오하이오	회장	송원길(의대 58)	614-378-2918	wonsong3140@aol.com	
	차기회장				
워싱턴 DC	회장	팔문선(음대 77)	703-969-3006	samilair2010@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장경태(사대 75)	703-901-3770	jangkang@gmail.com	
워싱턴주	회장	이형철(농대 77)	206-954-1871(C)	wonlee@beintil.com	
	부회장	수석총무	일현민(공대 84)	425-444-3899	heomin.lim@icorsoft.com
유타	회장	정경원(자연대 83)	801-897-4060	Kyungwan@fthradar.com	
	부회장				
조지아	회장	김동현(상대 68)	215-828-9011	dhkiskie@hotmail.com	
	부회장	강창석(의대 73)	314-363-8396	kangsb5@gmail.com	
중부 텍사스	회장	김성근(법대 78)	512-750-4680	hischri@gmail.com	
	부회장	이주희(공대 89)	512-663-0031	juhee_williams@gmail.com	
필라델피아	회장	한홍욱(공대 80)	484-354-3547	hanhr9@its.jnj.com	Jan-Dec
	부회장	유기병(문리 64)	215-822-5248		
플로리다	회장				
	부회장				
캐롤라이나	회장	정신희(자연대 78)	919-928-9696	sinho_jung@duke.edu	
	차기회장	이상구(자연대 78)	919-610-2830	sleep109nc.rr.com	
텍사스	회장	박재현(자연대 81)	865-896-9066	jae.park99@gmail.com	Jan-Dec
	부회장	박순준(농대 85)	865-974-8216	865-571-3802	saek2@utk.edu
하와이	회장	김윤수(농대 75)	808-394-2369	kykim@hawaii.edu	
	차기회장	신상익(해양 77)			
하틀랜드	회장	이상진(의대 70)	918-687-1155	seunghad@fmgmail.com	
	차기회장	박혜숙(공대 68)	913-911-1946	hyesunglee@yahoo.com	
	부회장	이호성(공대 72)	281-877-6584	hlee@eagle.org	Jan-Dec
휴스턴	회장	최인경(공대 75)	incho@ttn.com		
	부회장	이명균(농대 69)	778-378-7339	nycmikelee@gmail.com	
캐나다 밴쿠버	회장	김홍욱(공대 70)	604-524-0101		
	부회장	최용희(자연 82)	403-532-6625	dalhousesd@hotmail.com	
캐나다 앨버타	부회장				

A Tasty Gift From The Sea

Seaweed Snacks are versatile and can be used for a variety of dishes!



대표 이승훈 (상대 74)

Seas Gift

www.seasgift.com

877-HAPPY-81 장경태(사대 75)

novita usa

Something better for you



세정력의 차이
옥심품격의 완성
노비타 비데

서울대 동문에게는 1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대리사: 김혜영, 문리대 www.duo.co.kr

좋은사람 만나 결혼해 듀오

믿을 수 있는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결혼' 하면 누구나 듀오를 떠올립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한민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믿을 수 있는 듀오에서 당신의 인연을 만드세요.

듀오

• 소비자 인정하는 프라임 회원: 규모와 인품, 해외 사귀기 고가치 인정하는 결혼정보회사입니다.
• 듀오만의 맞춤 프로그램: 고객마다 체계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이상향을 찾아드립니다.
• 배려와 케어입니다: 친화적이고 믿을 수 있는 케어팀이 저수익 인연을 만들어 드립니다.
• 본국 화합입니다: 본국 화합과 만남을 위한 중국, 한국 6선언어 능통 직원 중 가장 많은 상자를 찾아드립니다.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LA지사 3955 Wilshire Blvd. #505 LA, CA 90010 / 뉴욕지사 2050 Center Ave. Suite 540 Fort Lee, NJ 07024

문의 LA 213-383-0077 / NY 201-242-0505

재미서울대 여행동아리와 함께하는 한스여행사!

한스에서 직접 모시고 가는 모든 단체 여행 상품들은 차별화된 고급 여행 상품들로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활력과 메시지를 선사해 드립니다.

2014년 한스관광이 직접 모시고가는 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월 10일(일) - 2월 19일(수) 크로아티아/4박 5일 SOLD OUT 2월 17일(일) - 2월 26일(수) HOLY LAND / EGYPT SOLD OUT 3월 27일(일) - 4월 5일(일) JORDAN 상하위 11박12일 3월 27일(일) - 4월 15일(일) HOLY LAND / EGYPT, ISRAEL, JORDAN 상하위 12박13일 3월 27일(일) - 4월 6일(일) THE BEST ISLANDS 7박9일 4월 11일(일) - 4월 11일(일) PERUAMAZON 양파의 산비 10박11일 4월 11일(일) - 4월 11일(일) PERUAMAZON 양파의 산비 + 15박17일 이과수, 리모넨(4박5일) 4월 11일(일) - 4월 11일(일) GREECE / TURKEY 12박1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월 14일(일) - 4월 21일(일) 9박10일 고급 한국풍 (홍도, 독산도 및 배방도) 7박8일 4월 22일(일) - 4월 29일(일) 양파 10박11일 (POST TOUR) 4월 29일(일) - 5월 7일(일) Amadua 동양산 신라왕 10일 5월 10일(일) - 5월 10일(일) 서울상 10박11일 SOLD OUT 5월 10일(일) - 5월 10일(일) 크로아티아+베네티아 11박 14일 5월 10일(일) - 5월 21일(일) 베네수엘라 플로레스타르 9박10일 - 2014년 SMU Group Tour 5월 10일(일) - 5월 10일(일) 중국-일본-베트남-호랑이산악 9박10일 5월 10일(일) - 5월 10일(일) 중국-일본-베트남-호랑이산악 9박10일 5월 10일(일) - 5월 10일(일) 중국-일본-베트남-호랑이산악 9박1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월 17일(일) - 5월 17일(일) 서울상 10박11일 5월 17일(일) - 5월 17일(일) 크로아티아+베네티아 11박 14일 5월 17일(일) - 5월 17일(일) 9박10일 5월 17일(일) - 5월 17일(일) 크로아티아+베네티아 11박 14일 5월 17일(일) - 5월 17일(일) 9박10일 5월 17일(일) - 5월 17일(일) 9박10일 5월 17일(일) - 5월 17일(일) 9박10일 5월 17일(일) - 5월 17일(일) 9박10일 5월 17일(일) - 5월 17일(일) 9박10일 5월 17일(일) - 5월 17일(일) 9박10일
---	---	---

HANS WORLD TRAVEL

Toll Free: 800-963-4267 / T. 703-658-1717, 301-770-1717, 410-480-9898 Fax: 703-658-3110. www.hanstravel.com, 7601 Little River Trpk, Suite 102, Annapdale, VA 20803

재미 서울대 여행동아리와 함께 한 여행자들



MAKE THE WORLD BEAUTIFUL.



SeAH

SeAH STEEL AMERICA, INC.

9615 S. Norwalk Blvd. #B
Santa Fe Springs, CA 90670
(562) 692-0600

이병준(상대 55)

